metro®
메트로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제2950호 www.metroseoul.co.kr

이통사 보조금 폭로…진흙탕 싸움

SK텔레콤·LG유플러스 '공정' 발표 수 일 만에 "우회 지급 폐쇄몰 운영" vs "온라인 예약 편법 영업"

"고객 만족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보조금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을 펼치겠습니다."-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서비스 및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인 통신 서비스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발언이 허언으로 끝나고 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정 경쟁을 발표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보조금 폭로전을 통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와 영업재개를 하루 앞두고 지난 4일 상대사의 불법 영업 행위 폭로전을 벌였다. 미래부 방침 위반 혐의로 CEO가 형사고발 조치될 위기까지 처했다. 지난 2월 '2·11 보조금 대란' 등의 주도 사업자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비방전을 이어가던 양사는 이번엔 영업정지 기간 불법 보조금 살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현재 이통 3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각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23일간 1차 영업정지였던 LG유플러스는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에 들어간다. 그간 단독 영업 활동을 하던 SK텔레콤은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KT는 26일까지 영업정지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앞서 최대 72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공세를 펼쳤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2' 65만원, LG '옵티머스뷰2' 70만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텔레콤은 기업과 협회 임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일명 '폐쇄몰'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갤럭시 S4 LTE-A' 46만원, LG 'G2' 54만원·'G프로2' 51만원의 보조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몰은 별도의 고객 인증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해 제재 기관인 방통위 몰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기 용이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단독 영업 기간 초반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지만 신규 가입자 유치에 큰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자체 판단에 막판에 전방위 보조금을 살포했다"면서 "보조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폐쇄몰을 운영하는 것도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에 불법 온라인 예약자 모집으로 편법 영업을 했다며 맞섰다.

SK텔레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호갱 등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 이번 예약 가입은 삼성 '갤럭시 노트3', LG 'G프로2'·'G2' 등 최신 스마트폰으로 보조금은 53만원에서 75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온라인 예약 가입은 미래부의 명령 위반 사항으로 향후 실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5일 영업 개시를 앞두고 4월 첫 주에 상당 물량의 예약 가입을 받고 있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조금 수준을 70만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가입 확인 전화까지 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 행위를 보였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런 의혹 제기에 "경쟁사가 제시한 사안은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성토했다.

앞서 미래부는 이번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한 지난 4일 오후 통신 3사 임원을 소집해 엄중 경고를 했다"며 "영업정지 이행사항 점검반을 통해 제보된 내용을 사실 확인 중이다. 정부의 권고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기름 유출 사후약방문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6일 울산 에쓰오일 원유 누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4일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기름 유출이 시작돼 이날까지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소방방재청 제공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감사

국토부 대상 무작위 진행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 합동으로 특정 감사인 '부작위(不作爲) 감사'가 시작됐다.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는 7~18일 2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부 부처의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 태도를 감사하는 부작위 감사는 2009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조국과 감청국이 합동으로 규제 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감사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특히 4~6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 내내 규제 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규제 업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추락 무인기 삼척에서도 발견

파주 것과 같은기종 국방부 북한제 추정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도 추락된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고도 1040여m) 중턱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며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에서 약초 채취업을 하는 주민 3명이 '지난해 10월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지난 3일 신고해와 이날 수색 끝에 찾아냈다"고 말했다.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 거리로 130여㎞ 떨어진 곳이다.

이들은 당시 추락한 무인기의 사진을 촬영해 이번에 군에 제시했고, 군은 주민 신고 후 사흘 만인 이날 오전 목격 장소인 야산으로 수색조를 투입한 끝에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 산간지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확인 결과 지난달 24일 파주에 추락한 하늘색 계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무인기 하부에 카메라가 장착된 구멍은 있었지만 카메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이씨는 발견 당일인 지난해 10월 4일 추락 지역에서 일제 캐논 카메라를 주워 폐기했고, "메모리 칩 내용을 지우기 전에 삼척의 해안가(광동호)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잇따라 발견되는 소형 무인기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 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추가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일부터 전 부대 동시 수색 정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에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영공 침범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여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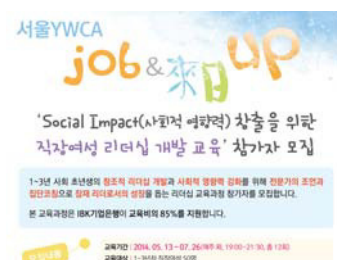
1~3년차 직장여성 리더십교육

서울YWCA 내달 13일부터

서울YWCA는 1~3년차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직장 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잡 & 내일 업(Job & 來日 Up)'을 진행한다.

1~3년 사회 여성 초년생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리더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역량 개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YWCA에서는 직장 여성들의 창조적 리더십 개발과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집단 코칭으로 잠재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창준 구루피플스 대표와 김현정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책임교수가 강사로 활동하며, 리더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기관리,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비롯해 자신의 잠재된 리더십을 발굴해

조직 내 참여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델 개발, 실천과제 해결 중심의 여성 역량 강화 워크숍, 멘토 오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히 멘토 오픈 특강에서는 '따뜻한 카리스마'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이미지 디자인계의 달인인 이종선 멘토를 모시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e메일(women@seoulywca.or.kr)로 전송하면 된다. 교육비 65만원 중 IBK기업은행이 55만원 지원으로 본인 부담은 1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워싱턴 향하는 북핵 6자회담 대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가운데)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평생 MSG 섭취해도 안전하다"

식약처 식품첨가물 오해 해명

보건 당국이 인터넷 포털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MSG 섭취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자체 발행하는 웹진 '열린 마루'(2014년 3월호)에서 '식품첨가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란 글을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번지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식품첨가물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이 글에서 감칠맛을 내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지만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MSG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이 정식 명칭인 MSG는 과다 섭취하면 뇌신경세포가 파괴되고, 민감한 사람은 두통과 메스꺼움,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겪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선뜻 사용하기에 불안한 식품첨가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지난 1995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연구·조사한 결과, 평생 먹어도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이미 판명됐다고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글루타민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하나로, 모유나 우유·치즈 등의 유제품과 육류·감자·완두콩·토마토·옥수수 등 자연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는 것이다.

즉, 일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과 달리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조합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영일기자 prms@

여의도 한강변서 금연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제10회 여의도 봄꽃축제'를 맞아 여의도 한강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여의도 봄꽃축제에 나들이 나온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행사장 주변에서 흡연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금연 포스터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ISO 26000 도입 선언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도입하고 선언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1조원을 돌파한 공단은 국제 표준 ISO 26000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취소 판결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 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 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파주 문산~용산 전철 연말 개통

경의선 완공…환승없이 중앙선 연결

경기도 파주 문산과 서울 용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전철이 올해 말 완전 개통된다. 용산역에서는 환승 없이 중앙선과 곧바로 연결된다.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을 관통, 반대편 동부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첫 열차 노선으로 고양 일산에서 한양대·서울시립대·경희대·한국외대 등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말 경의선 서울 공덕~용산 1.9㎞를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경의선 전철은 2009년 7월 경기 파주 문산~서울 DMC 40.6㎞에 이어 2012년 12월 DMC~공덕 6.1㎞를 개통했다.

그동안 공덕~용산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았다. 2012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연기됐다.

용산역은 경의선 종착역이자 중앙선 전철 시발역이다.

코레일은 이를 연결해 경의선 전철을 타고 환승 없이 중앙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승객이 늘 것에 대비해 경의선을 하루 25편성에서 39편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현행 9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고 전동차는 4~6량에서 8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경의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기로 하고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는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출퇴근 시민, 대학생 등에게 편리한 철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한식' 성묘객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불리는 한식인 6일 오전 경기 파주 탄현면 헤이리로 동화 경모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성묘를 지내고 있다. /뉴시스

에쓰오일 사흘째 기름 유출

온산공장 오일붐펜스 설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사흘째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울산소방본부와 에쓰오일은 6일 오전 11시 사고가 난 원유 저장탱크에 원유 5만1000배럴 가량이 남아있으며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원유 저장탱크에는 사고 발생 당시 모두 57만 배럴의 원유가 들어있었다. 흘러나온 원유는 대부분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높이 3m에 이르는 콘크리트 방유제 안에 차 있는 상태다.

에쓰오일 측은 원유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주변의 또 다른 저장탱크로 약 38만1000 배럴을 옮겼으며 현재까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남은 원유의 경우 이날 오후 9시쯤이면 탱크 내 원유 이송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기름 유출도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콘크리트 방유제 안에 남아있는 13만8000배럴의 원유는 방유제 안에 둘러 쌓여 외부 유출이 없는 상태며 폼액을 방수하여 유증기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방유제 안의 원유 이송 작업은 2~3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쓰오일 측은 아직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없으며, 또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 갈 것에 대비해 기름 유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흡착포 및 오일붐펜스 등을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집배원이 화재 초기진압 '화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서울강서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이강연(41·남·사진) 집배원은 지난 2일 오후 3시10분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길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다세대주택 지하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발견, 즉시 119에 신고했다.

이 집배원은 이웃 주민들에게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근에 있는 서울 화곡5동 우편취급국에서 소화기를 가져와 화재를 진압했다.

지하철 잦은 사고 "이유 있었네"

7대중 1대 도입 20년 넘어

주요 수도권 지하철 7대 중 1대꼴로 도입한 지 20년 넘은 노후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차량 노후도를 집계한 결과 6024대 가운데 881대(14.6%)가 20년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1호선 일부 구간과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485대 가운데 20년 이상 차량이 16.7%(41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6~20년이 33.2%(824대)였고, 11~15년과 6~10년은 각각 13.3%(330대)와 14.2%(354대)로 나타났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전체 1954대 가운데 23.8%인 466대가 20년 이상이었으며 16~19년은 36.8%(718대)였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차량 1585대 가운데 20년 이상은 없었으며 16~19년이 52.6%(834대), 11~15년이 45.9%(727대)였다.

코레일 임석규 홍보처장은 "이달 중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년 넘은 차량을 일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신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편의점 무선비상벨 작동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부터 편의점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 24시간 편의점 394곳과 112종합상황실 간 '무선 비상벨 시스템'을 운영한다.

새로 도입된 무선 비상벨은 무선 자동차 키 형태로, 스위치를 누르면 무선 연결된 매장 내 유선 전화를 통해 자동으로 112 신고가 된다.

경찰은 미리 업소 정보를 112신고센터 서버에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무선 비상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나서 많은 현금을 다루는 다른 방범 취약업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UTIS 내비 사면 10만원 보조

서울시는 이달부터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내비게이션 구매 시 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UTIS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정보·경로탐색 등의 기능과 함께, UTIS 기능인 폐쇄회로(CC)TV 영상·실시간 소통상황·사고 등 돌발정보 기능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실시간으로 돌발 상황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UTIS 내비게이션은 지정 판매점(팅크웨어, 에세텔) 인터넷 홈페이지와 G마켓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 단말기 보조금 지급 확인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조각가 권진규 태어남

1922년 4월 7일 점토를 구워 만드는 조각인 테라코타로 유명한 조각가 권진규가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무사시노 미대에서 앙투안 부르델의 제자인 시미즈 다카시에게 조각을 배웠다. 귀국 후 외부와 격리된 채 영적인 구상조각에 몰두했으나 천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73년 고려대 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한 후 51세의 나이에 '인생은 공(空), 파멸'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버렸다.

양평군 웰빙투어 참가자 모집

서울시 강북구가 25일까지 자매도시 경기도 양평군으로 떠나는 '양평군 웰빙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웰빙투어는 다음달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평군 산나물 축제장 및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과정 운영

서울시 관악구는 14일 관악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신청은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11일까지 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무료로 진행된다.

도서관서 방송대교재 이용

금천구립도서관 이용자는 7일부터 금천구 소재 4개 구립도서관 및 11개 공립작은도서관 등 방송통신대학교 교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1021종 방송대 교재 및 154종 논문집 등을 비치한다.

대형 콘서트 열 공연장 태부족

metro HongKong

공연협회, 추가 건설 촉구

홍콩에서 대형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공연장은 홍콩 콜리세움과 아시아월드엑스포 두 곳뿐이다. 공연협회는 대형 공연장 건설을 희망하며 시주(西九)에 공연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많은 홍콩 주변 지역들이 4만 명에서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건설 중이다.

공연협회 천수펀(陳淑芬) 대표는 "미국 가수 리한나가 지난해 마카오에서 콘서트를 두 차례 열었는데 많은 홍콩 관객들이 콘서트를 찾았다"면서 "홍콩 공연장 규모가 작아서 스타들이 마카오에 가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홍콩의 '국제 도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콘서트는 주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이공대학 호텔관광학과 연구에 따르면 3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을 건설하면 홍콩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관광객 비율은 현재의 20%에서 30%로 증가하고 매년 티켓 수입은 14억 홍콩달러(약 19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요식 등 부대 관광 소비액은 연 52억 홍콩달러, 일자리는 1만6397개를 창출할 수 있다.

홍콩인 5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지난해 홍콩에서 콘서트를 관람했으며, 약 20%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콘서트를 관람했다고 답했다.

천 대표는 "3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건설할 수 있는 곳은 시내에 치더신 개발구밖에 없다. 지금 결정을 내리고 착수해도 완공되려면 5~6년이 걸린다. 이 시간 동안 아시아의 다른 지역 공연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홍콩의 공연장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여객기 수색 한달 미궁 속으로

블랙박스 신호발신기 전지 수명 곧 끝나

말레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 수색이 6일로 30일째를 맞았다. 기체의 행방을 밝힐 단서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종기 블랙박스 신호 발신기의 작동 종료 시점이 다가와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달 8일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도중 남중국해 상공에서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15일 여객기가 의도적으로 통신 장치를 끈 상태에서 항로를 틀어 군 레이더 밖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24일에는 실종기가 인도양 남부에서 비행을 마쳤다며 추락으로 결론 지었다.

이후 호주, 미국, 중국, 한국 등으로 구성된 국제수색팀은 남인도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3주째 벌이고 있지만 항공기 잔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블랙박스 신호 발신기 전지의 수명이 끝나는 사고 후 30일째가 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은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블랙박스 신호가 사라지면 무인 잠수정 등으로 바다 밑바닥에서 항공기 잔해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색 범위가 너무 넓어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수색 기간이 몇 년에 달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5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해양 순시선 하이쉰 01호가 블랙박스 발신기가 내는 신호와 같은 주파수 37.5㎑의 신호를 탐지했다며 잔해 발견에 실낱같은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신호가 실종기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체의 행방과 사고 원인이 '블랙홀'에 빠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고 후 추락 지점을 추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뒤늦게 공개해 수색에 혼선을 빚게 하고, 통신기기 작동 중단 시점을 번복해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세계 베개 싸움의 날 행사 5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베개싸움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베개로 상대방을 때리며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옐로스톤 공원 화산 폭발 우려

美ABC방송 "들소 떼 이동"

슈퍼화산 폭발이 임박했나.

미국 ABC방송은 최근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 주변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인터넷 등에 확산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공원 내에 살고 있던 미국 들소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우려가 공포로 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들소 떼가 화산 폭발을 사전에 감지하고 본능에 따라 안전지대를 찾아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하지만 화산 폭발의 '사전 암시'로 여겨지는 이들 현상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옐로스톤 국립공원 주변에서는 수시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감지된 4.8 규모의 지진도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이야기다. 또 들소 떼의 이동은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먹이를 찾아나서는 들소들의 본능에 따른 것이라는 반론이다.

특히 옐로스톤 아래의 슈퍼화산은 워낙 규모가 커서 폭발 징후가 생기면 거의 예외 없이 포착된다고 ABC는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프가니스탄 대선 성공종료

사상 첫 평화적인 권력 교체를 위한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탈레반의 테러 위협 속에서도 선거 열기가 높아 투표율은 60%에 달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열린 대선에서 7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특히 전체 투표자 중 여성이 36%에 이를 정도로 여성들의 참여 열기가 높았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투표에 참여한 주부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다. 탈레반의 위협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는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적인 지원을 계속 받고 민주적인 미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공공부문 한해 이자 지출 60조3000억

부채로 인한 공공 부문의 이자가 한 해 6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체 공공 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884억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 정부의 이자 지출은 2012년 29조8258억원으로 2007년 20조5832억원보다 9조2429억원(4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 지출은 3조2870억원에서 6조6044억원으로 2배로 늘었다.

/김민지기자

market index <4일>

코스피
1988.09
(−5.61)

코스닥
560.44
(+3.43)

금리(국고채 3년)
2.8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54.80
(−2.50)

씨티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코튼라이히 부행장 "점포수 조정" 밝혀… SC은행도 추가 감축 전망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년 만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엘 코른라이히 씨티은행 부행장은 최근 노조 측에 "올해 한국 내 사업을 디지털 뱅킹 구축과 주요 거점 도시의 상류층을 상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경영이 필요하며 이럴 경우 점포 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만간 회사 경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엘 부행장이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부문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보다 앞서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지점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존 거스패치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올 초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씨티그룹은 지난 18개월간 포트폴리오 변화에 집중하면서 한국 전략을 재검토했다"며 "한국지점 축소로 인한 비용은 연말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7년에 123명,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299명, 199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사측이 올해 점포 수를 10% 이상 줄이고, 직원 수를 최대 1000명 이상 감축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특별 퇴직을 통해 200여 명을 떠나보냈다. SC은행은 지난 2011년 800여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한 이후 2년 만인 올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두 은행 모두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점포 축소와 함께 희망·명예퇴직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아이폰 아킬레스건' 잡스도 생전에 인정

고 스티브 잡스(사진) 애플 창업자가 아이폰이 안드로이드폰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공개됐다.

6일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와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 2차 소송 증거로 공개된 2010년 잡스의 e메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잡스는 발신일이 2010년 10월 24일로 표기된 e메일에서 "2011년은 구글과 성전을 치르는 해"라며 "우리가 안드로이드에 뒤처진 기능을 따라잡고 그들을 뛰어넘자"고 강조했다.

뒤처진 기능으로는 알림과 테더링(스마트폰으로 다른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능), 음성 인식을 예로 들었고 그들을 뛰어넘자는 부분에서는 시리를 언급했다.

또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안드로이드에 뒤진 포토 스트림과 클라우드 저장공간 관련 기능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잡스는 당시 저가형 아이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폰3GS를 대체할 저가형 아이폰을 아이팟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

자영업 가구빚 1억 근로자 평균의 2배

지난해 가계부채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1억16만원에 달해 임금근로자 가구의 5169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지난해 금융대출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 비중은 23.7%이지만, 총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비중은 4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한국의 금융대출 가구 중 임금근로자는 681만 가구, 자영업자는 303만 가구다.

보고서는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반면, 자영업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 상환 능력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금융대출 가구의 연 이자 비용은 2012년 517만원에서 2013년 526만원으로 1.7%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는 부채 증가의 원인이 생활비(31.1%), 사업 자금(23.6%) 등이고 임금근로자 가구는 생활비(35.7%), 교육비(26.4%) 등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2년 4425만원에서 2013년 4397만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4517만원에서 4707만원으로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63년생)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탁기자

LG 첨단가전에 눈 못떼는 미국 LG전자는 6일 '2014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농구 챔피언십' 경기장 인근 팬 축제 행사장인 'NCAA 브래킷타운'에서 UHD TV, 곡면 올레드 TV 등 차세대 TV 라인업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LG전자 제공

대기업 수익성 악화에도 고용 2.4% 늘려

지난해 매출 상위 10곳은 평균 4.6%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2.4%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100대 기업은 영업이익이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0.4%포인트 낮아질 만큼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고용은 2.4% 늘렸다.

2013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의 2012~2013년 고용률(국내 상주 직원)을 조사한 결과 74만5098명으로 나타나 전년도 72만7429명 대비 1만7669명(2.4%)이 증가했다.

특히 재계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이끌었고, 매출 상위 10대 기업도 직원 수를 평균 4.6% 늘리며 이하 100위권 기업들(1.1%)보다 앞섰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도 6%로 전년 수준을 유지해 실적 부진 속에서도 고용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다.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하이마트로 3120명에서 3878명으로 24.3% 늘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직원 수가 6382명으로 전년보다 22.9%(1190명) 늘었고, SK이엔에스는 299명으로 20.6%(51명) 늘리며 2, 3위에 올랐다.

이어 현대글로비스(15.4%), 두산중공업(15.3%), 서브원(12.6%), 한화건설(11.0%), 삼성물산(10.9%), 대림코퍼레이션(9.3%), 삼성토탈(8.2%)이 증가율 '톱 10'을 기록했다.

다만 롯데하이마트는 비정규직이 33명에서 419명으로 크게 늘어 정규직 대비 비율이 12.1%로 10배 이상 높아졌으며, 두산중공업 역시 비정규직 수가 213명에서 1302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난 탓에 고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우인터내셔널(−38.1%), 이랜드월드(−21.8%), 삼성카드(−12.2%), 팬오션(12.0%), LG이노텍(−7.8%) 등은 큰 감소율을 보였다.

/김두탁기자 kimdt@

로또복권 제592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5	6	13	28	44	43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356,381,68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84,156,489
3등	5개 숫자 일치	1,675,94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건설사 '분양 금메달' 따자! 단지마다 스포츠 마케팅 붐

건설사들이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막을 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6월 브라질 월드컵, 9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올 들어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이달 경남 양산시 물금택지지구 13블록에서 분양하는 '남양산역 반도유보라 5차'에 지역 프로축구단인 경남 FC와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축구교실은 단지 내 마련된 풋살경기장에서 진행,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경남 FC의 유소년 전문 코치로부터 드리블, 패스, 슈팅 등을 직접 배울 수 있다. 축구 관련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코치들의 도움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스포츠 채널들을 통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6월에 월드컵이 열리는 만큼 축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운동 효과가 높고 단체 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이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KB부동산신탁이 제주시 건입동에 공급하는 '호텔 리젠트 마린 제주'는 광고모델을 2002년 월드컵 영웅인 거스 히딩크 감독으로 선정했다. 선착순으로 히딩크 감독의 사인볼을 증정하는 행사를 갖고, 견본주택 내 포토존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성공리에 청약을 마친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은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부지를 강조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유천지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기자들의 미디어촌, 선수촌을 포함해 4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올림픽 선수촌 택지지구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스포츠 마케팅은 오래전부터 지속돼왔다. 현대산업개발은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콘스의 명칭을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부산 아이파크로 바꿨으며, GS건설은 후원 중인 FC 서울 유니폼에 '자이' 광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파트 브랜드를 알리거나 건설사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었을 뿐, 개별 단지에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최근의 스포츠 마케팅은 아파트 판매는 물론, 계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팔수록 밑지는 차보험

5개사 손해율 84%… 사업비율 합산땐 102%
폭설탓 사고 늘고 민원 증가에 과잉경쟁까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동차보험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여전히 고공 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적정 수준인 72%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삼성화재를 비롯한 상위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4%, 장기보험의 경우 85.9%를 나타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자보 손해율은 93.6%로 보험료의 대부분이 사고보상 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장기보험의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88.2%로 상위 5개사들 중 가장 높았다.

손해율에 사업 비율을 합산한 지표가 합산 비율이다. 보험사의 수익 지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이들 5개사의 합산 비율은 102.9%. 보험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경기 불안으로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손해율까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겨울 기상 악화로 사고가 늘었고 민원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보험료는 점차 내려가고 보험 가입 조건도 점차 완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외제차 보험료를 인상한 가운데 3월부터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상을 추진 중이다. 또 노인실손의료보험 등 인보험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신상품 출시로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설로 인한 사고 증가가 우려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예상보다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손해율은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무제한' 가입 스타트! 지난 5일 모바일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 영업을 재개한 LG유플러스는 6일 대국민 홍보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초동 LG유플러스 시청역 직영점에서 고객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3.5%"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6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전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3.4%에 비해 전망치가 0.1%포인트 높아졌지만 기준 연도와 국민계정 통계편제 변경 효과 등이 혼재돼 실질적인 상향 조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양적완화(QE) 축소 ▲엔저 ▲중국 성장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무역경쟁 격화 등이 우리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진입 ▲기업 투자심리 위축 ▲제한적 재정 여력 등으로 파급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별로는 올해 소비자물가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 추진, 기저 효과 등으로 작년의 1.3%보다는 높아지겠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2.2%의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소폭 축소되지만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가 유지되면서 올해에도 767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봤다.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68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 등 원화 강세 요인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에 의해 일부 상쇄된다는 주장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원금보장·연 7% 수익 '롱숏 ELB' 떴다

우리·신한투자 일반 판매 한달새 900억 몰려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원금 보장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연 7~8%대 수익을 추구하는 점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7일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롱숏 ELB 상품을 선보여 모집 한 달 만에 900억원가량의 자금을 모집했다.

롱숏 ELB는 투자 자금을 모두 CD(양도성 예금증서)에 넣어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동일 금액의 증권사 고유 자산을 투자자문사에 맡겨 롱숏 전략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롱숏은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을 사고(롱) 하락할 전망인 주식을 공매도(숏)한다.

기존 롱숏 ELB는 기관이나 법인 등 전문투자자나 50억원 이상으로 가입 금액을 제한해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일반 ELB 상품의 성과가 저조하면서 롱숏 상품을 일반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일반 ELB 상품은 2~3%의 성과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 초과 수익률을 노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본 수익률 정도만 충족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ELB가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반면 기존 롱숏 ELB의 성과는 높은 편이다. 지난 2012년 3월 판매를 시작해 지난달 만기 상환된 우리투자증권의 롱숏 ELB 1호 상품은 약 23%의 수익률을 거뒀다.

다만 일반투자자 대상의 롱숏 ELB의 가입 문턱도 아주 낮진 않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최소 가입 금액을 10억원으로 두고 있고 우리투자증권도 3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일반투자자가 무난하게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여전히 상장지수펀드(ETF)"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서울YWCA

job & 業 UP

'Social Impact(사회적 영향력) 창출을 위한 직장여성 리더십 개발 교육' 참가자 모집

1~3년 사회 초년생의 **창조적 리더십 개발**과 **사회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과 집단코칭**으로 **잠재 리더로서의 성장**을 돕는 리더십 교육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IBK기업은행**이 **교육비의 85%를 지원**합니다.

모집내용

교육기간 | 2014. 05. 13 – 07. 26(매주 화, 19:00–21:30, 총 12회)

교육대상 | 1~3년차 직장여성 50명

교 육 비 | 65만원(본인부담 10만원, IBK기업은행 55만원 지원)
*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 및 저녁식사 제공

교육내용 | 자기인식 극대화 및 창조성 향상을 위한 리더십 그룹코칭 **10회**
저명인사와 함께하는 오픈 특강 **1회**
On the Road(개인리더십 정립을 위한 아웃도어 활동 / 수료식)
1회(7월 26일(토) 09:00–18:00)

교육강사

이 창 준(GURU 피플스 주)아그막 대표)

김 현 정(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책임교수)

선발과정 및 일정

1. 모집마감 : 2014. 05. 02(금)
2. 서류심사 : 2014. 05. 07(수)
3. 최종선발(개별 통고) : 2014. 05. 08(목)

신청방법

메일접수 women@seoulywca.or.kr

1. 서울YWCA 홈페이지(www.seoulywca.or.kr)에 접속 후 '진행 중인 서울Y프로그램'란에서 내용 확인
2.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접수
3. 최종 합격자에 한해 교육비 10만원 납입

문의 서울YWCA 여성리더십 교육팀 02-3705-6097

주최 YWCA 서울YWCA 후원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소니·캐논 서로 '디카 1위'

양측 근거로 내세운 GfK 시장조사 집계 자료 한쪽 오픈마켓 포함… 다른쪽 오픈마켓 제외

국내 디지털 카메라 시장 단독 1위 브랜드가 2개인 유별난 상황이 최근 벌어졌다.

공동 1위가 아니면서 1위가 2개인 독특한 '해프닝'이 IT업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주인공은 캐논과 소니다.

지난 3일 소니는 2월 국내 전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 33.163%로 1위를 기록했다고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숫자를 적은 것에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만년 1위 캐논이 드디어 밀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미러리스나 DSLR처럼 사용자가 렌즈를 바꿀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똑딱이'로 통하는 콤팩트 제품을 제외하면 디카의 전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분야 1위는 의미가 크다. 특히 콤팩트와 달리 렌즈 교환식은 단가가 높아 상대적으로 마진도 많다.

이에 캐논은 바로 다음날 "국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캐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로 1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시장조사업체 GfK의 집계 자료다. 문제는 소니는 오픈마켓을 포함한 시장조사 자료를, 캐논은 오픈마켓을 제외한 자료를 인용해 '하늘에 두 태양이 뜬' 꼴이 됐다.

오픈마켓을 제외한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캐논의 시장점유율이 34.2%이고 소니는 그보다 4%포인트 낮다. 오픈마켓을 포함한 자료에서는 소니가 0.006%포인트 미만의 근소한 격차로 1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캐논은 왜 오픈마켓 판매량을 제외했을까.

캐논 관계자는 "오픈마켓 판매량은 정확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다. 캐논이 항상 오픈마켓 자료를 배제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니 측은 "시장조사업체의 전체 판매 채널 자료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물론 양사가 기준으로 한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소니는 2월, 캐논은 1월과 2월이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0.006%포인트 차는 매우 미미하지만 11년 연속 독주해온 업체를 근소하게 제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니는 이를 계기로 캐논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라이나 실버암보험 "80세도 가입"

글로벌 보험기업 시그나의 한국법인인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명, 여자 39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대장암·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박정원기자 pjw89@

블랙박스 '프로비아' 강민경 모델로

차량용 블랙박스 전문기업 에이치디비정보통신(www.provia.co.kr)은 자사의 블랙박스 브랜드 '프로비아'의 광고모델로 가수 강민경(사진)과 계약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프로비아 측은 "많은 남성팬을 확보한 다비치의 강민경은 섹시함과 청순함, 가창력까지 여러 방면에서 다재다능함을 뽐내고 있는 스타"라며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2014년 프로비아가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 PL5000만이 가진 다양한 기술력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비아의 신제품 PL5000은 블랙박스를 5년간 개발하며 야기된 고객 불만 사항을 분석해 제작한 국내 최초 고객 맞춤형 블랙박스다.

기존 블랙박스가 주차 모드 시 평균 3~4시간 정도만을 저장해 주말 같은 경우 앞선 영상이 지워지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 제품은 주차 시 최대 45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어 주말에도 걱정 없이 모든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또 프로비아 PL5000은 부팅 시간을 10초 내로 단축해 부팅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영상 누락을 최소화했다. /김태균기자 ksgit@

한화 식목일 맞아 '잣나무 심기' 봉사 식목일을 맞아 한화/무역이 자원봉사 양해각서(MOU)를 맺은 서울 중구청과 함께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중구 관내 응봉근린공원 산책로에 1.5m 크기의 스트로브 잣나무 130그루를 심었다. /한화 제공

스위스 철도청 업무 단말기 삼성 '갤럭시 시리즈' 선정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S4' '갤럭시S4 미니' 등 스마트폰 단말기와 '갤럭시 탭3' 태블릿 제품이 스위스 국영 철도청(SBB·Schweizerische Bundes Bahnen)으로부터 모바일 오피스 구축과 직원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한 기업간거래(B2B) 단말기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스위스 국영 철도청의 모바일 오피스 구축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유수의 단말기 제조업체가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쳤지만, 갤럭시 시리즈가 최종 선정돼 B2B 단말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는 4월부터 연말까지 총 3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공급할 계획으로, 철도청 직원들은 삼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기차 내 검표와 발권 ▲설비와 차량 점검 ▲업무용 등으로 활용한다.

전병준 스위스 법인장은 "이번 스위스 국영 철도청 대량 수주를 계기로 프리미엄 시장인 유럽에서 교육·금융업계는 물론 글로벌 기업과 국제 기구 등에도 B2B 사업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삼성-LG 불꽃 튀는 혼수가전 마케팅

가전업계가 본격적인 혼수철에 접어들면서 예비 신혼부부를 겨냥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을에 윤달이 끼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4월과 5월에 결혼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대표 가전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를 겨냥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슈퍼 프리미엄 키친 가전 라인업인 '셰프컬렉션 냉장고'를 선보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들과 공동으로 기획·개발된 셰프컬렉션 냉장고는 재료 궁극의 신선함을 제공하는 전문 푸드케어 냉장고다. 삼성전자는 향후 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슈퍼 프리미엄 키친 라인업을 잇달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강력한 회오리 바람과 초절전 디지털 인버터를 채용한 프리미엄 에어컨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고효율 디지털 인버터 모터를 채용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인 초절전 '삼성 인버터 제습기' 등은 예비 신혼부부의 발길을 잡아끄는 제품들이다.

LG전자는 혼수 특수를 잡기 위해 ▲정수기와 냉장고를 결합한 신개념 LG디오스 정수기냉장고 라인업 ▲'3MTM 초미세 먼지필터'와 '듀얼 파워 탈취필터' 등 2개의 특화 필터를 추가한 공기청정기 신제품 ▲'포커스 4D 입체냉방'을 적용한 '휘센 빅토리' 에어컨 ▲디자인 및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LG 휘센 인버터 제습기' 등을 잇달아 출시했다.

예비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이벤트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30일까지 최신 프리미엄 제품과 에너지 절약형 제품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삼성전자 S 프러포즈 굿스위칭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LG전자는 그랜드 힐튼 호텔과 함께 올해 결혼을 계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퓨어 화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달부터 9월 사이에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예식을 진행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매달 한 커플에게 LG클래식 오디오와 LG사운드 바를 증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전업계가 본격적인 혼수철에 맞춰 프리미엄급 가전부터 소형 가전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종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신혼살림 장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지하철 연장선 따라 집값도 달린다

신분당선 연장 역세권 '레미안 수지' 일찌감치 완판… 복선전철 호재 별내신도시 매매가 올라

지하철 개통이 확정된 역세권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가 인기를 끌면서 지하철 개통은 집값을 올리는 호재로 손꼽힌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교통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대형 할인점 등 편의시설도 늘어나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주거 편의성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지하철 개통 지역, 인기도 좋아

삼성물산이 지난해 8월 분양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는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용인에서 공급됐음에도 초기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일찌감치 완판을 기록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하철 개통이 큰 몫을 차지한다.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는 2016년 개통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수지역과 동천역(가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분당선 죽전역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따른 강남과 판교, 분당 생활권 접근이 쉬워지면서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역세권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집값으로 반영되고 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근처에 위치한 '중방 e편한세상 3단지'는 지하철 개통 전인 2001년 9월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가 2억1750만원이었지만 개통 후인 2002년 9월에는 2억4000만원으로 1년 사이 2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연장하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확정된 남양주 별내신도시도 4호선 연장 호재를 누리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별내동 '신안인스빌' 전용면적 84㎡는 작년 3월 3억8500만원에서 올해 3월 3억9000만원으로 뛰었다.

◆교통호재 지역 분양 잇따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은 대구 동구 안심역에서 하양역까지 총 연장 8.77㎞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 코아루'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역세권 단지로 전체 314가구,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됐다.

10년 만에 하양지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로, 남향 위주 배치의 단지 설계로 채광과 환풍에 신경을 썼다. 이달 분양 예정으로 하양지역 최초 확장형 설계를 도입해 중대형 못지않은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잠실운동장 구간은 여의도와 김포공항 등 강서권과 강남권을 이어주는 구간이다. 새롭게 개통되는 9호선 선정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아크로힐스 논현'은 오는 11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6~113㎡, 전체 368가구 중 57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지난달 26일 기공식을 가진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2018년 11월 개통 예정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잇는다. 오는 5월 GS건설은 김포시 장기동 일원에 '한강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100㎡ 총 4079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1차분 3481가구를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사과 같이 상큼한 바나플 드세요 이마트는 6일부터 용산점, 성수점 등 수도권 주요 점포에서 프리미엄 바나나 바나플과 로즈바나나를 판매한다. 가격은 바나플 3980원(1송이), 로즈바나나 2980원(1송이)이다. 바나플은 사과 같은 상큼한 맛을 자랑하고 과육이 차진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 제공

보험 가입시 필수 체크포인트 5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보험의 '홍수'라고 할 만큼 수많은 보험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슷비슷하겠지"란 생각에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추천만으로 덜컥 가입했다간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장 혜택을 놓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보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듣기

먼저 보험 약관 등을 자세히 살피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보험설계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해가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2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보장 관련 내용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듣고 가입했는데 추후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두 설명의 진위를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면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3 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 의무사항 체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상의 해당 질문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병력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려주는 정도로 그친다면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보험증권 확인하기

보험증권을 받으면 자신이 가입하려고 한 상품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상품이라면 계약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회 보험료 영수증은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보장은 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5 보험계약 철회하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했더라도 보장 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점을 발견했거나 단순 변심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다만 이달부터는 일부 보험사를 시작으로 철회 기간 기산일이 보험증권 수령일로 바뀌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됩니다./정리=김현정기자 hjkim1@

"외국인 사자세 계속될 듯"

금융가 사람들

■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조원어치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최소 두 달 정도는 순매수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김영일(사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분기에도 비슷한 수급이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 정도 외국인 '사자'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다가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서 8거래일 연속 '사자' 세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은 국내 증시는 물론, 신흥국 시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에 모두 들어온 점이 긍정적"이라며 "특히 신흥국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것은 신흥 시장의 리스크가 줄었다고 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주간(3월 24~28일)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 MSCI 이머징마켓 ETF'로 13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가 유입됐다. 이 중에서 국내 증시에 배분되는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2억2000만 달러(약 2400억원), 16% 정도다.

통상 ETF 자금의 순유출 흐름은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동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 글로벌 펀드 자금에서 ETF는 30%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일반 펀드가 차지한다.

김 연구원은 "물론 선진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큰 상태"라며 "그러나 신흥국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가격적 측면의 매력을 본 스마트머니가 일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대비 신흥국 증시의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선진국 증시의 지수가 100이었다면 신흥국 증시의 주가는 68에 그쳤다. 이후 2010년 신흥국 주가가 110으로 선진국을 웃돌며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81까지 떨어지고서 올 들어 73으로 밀렸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우려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펀드 자금의 유출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6월 펀드 자산의 2.6%가 이탈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달 2.3%가 유출됐다"며 "그러나 이후 유출세가 둔화하고 있어 자금 이탈의 클라이맥스는 지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이 올 들어 처음 유입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순매수세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란 시각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im1@

진화한 국민세단, 숫자보다 느낌 팍팍!

쏘나타 7세대 LF 2.0 CVVL 모델 시승기

기자가 되고 나서 처음 시승한 쏘나타는 1996년에 나온 쏘나타3였다. 쏘나타2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히트했던 그 모델 이후 98년에 EF 쏘나타가 나왔고, 2004년 NF 쏘나타를 거쳐 2009년에는 YF 쏘나타가 등장했다. 자동차 전문기자가 된 이후 출시된 차 가운데 꾸준히 이름을 유지한 몇 안 되는 차가 바로 쏘나타였다. 그리고 얼마 전 LF 쏘나타를 안면도 시승회에서 만났다.

7세대로 진화한 신형 쏘나타는 자동차의 '본질'을 내세웠다.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자동차의 기본기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디자인은 6세대보다 점잖아졌고 과장된 꾸미기가 사라졌다. 피터 슈라이어가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로 부임한 영향 때문인지 앞모습은 기아차 K5의 진화형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내년에 등장할 K5 후속이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대시보드는 매우 간결하게 정리됐다. 센터페시아는 세로로 길게 배치됐던 6세대 쏘나타와 달리 가로로 간결하게 디자인했다. 스위치 숫자를 줄여 조작성을 높인 점은 좋지만, 주변을 감싸는 재질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시승 모델은 2.0 CVVL 한 가지만 나왔다. 최고 출력은 168마력으로 YF 쏘나타의 172마력보다 줄었으나 최대 토크는 20.5kg·m로 그대로다. 엔진은 기본적으로 구형과 같지만 가속 반응과 음색은 달라졌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 회전수와 속도계가 비슷하게 상승하고, 풀 가속을 시도하면 묵직한 중저음의 사운드가 들려온다. YF 쏘나타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카랑카랑한 고음이 귀에 거슬렸고 엔진 회전 수가 올라간 뒤 한 박자 늦게 속도가 상승했다. 신형 쏘나타의 변화는 눈으로 보이는 숫자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가속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의 향상이다. YF 쏘나타는 고속 더블 레인 체인지(차선을 바꿨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테스트)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형 쏘나타는 상당히 안정된 감각을 보여준다. 경쟁차인 도요타 캠리, 닛산 알티마, 혼다 어코드, 포드 퓨전 등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핸들링이다. 기존보다 10㎜ 줄어든 스티어링 휠의 지름도 핸들링 향상에 기여했다.

조용해진 엔진룸과 달리 언더코팅 부실한 하체 소음 아쉬워

아쉬운 점은 하체의 방음이다.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대폭 줄었지만,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구형과 달라진 게 없다. 언더 커버를 달아 공기저항은 감소시켰으나 소음이 큰 이유는 하체의 언더코팅이 부실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수출용에는 언더코팅 처리가 돼 있다"고 설명한다. 내수용에는 왜 같은 처리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형 쏘나타 2.0의 표시연비는 도심 10.5㎞/ℓ, 고속도로 14.8㎞/ℓ, 복합 12.1㎞/ℓ다. 고속 주행을 했던 이번 시승회에서는 7.5㎞/ℓ를 나타냈다. 2.0 가솔린 엔진으로 나쁜 편은 아니지만, 수입차에 맞서려면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꼭 필요해 보인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수입차 1만5733대 3월 신규등록

전년동월비 무려 30% 늘어

수입차 판매가 올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3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2월 등록보다 13.6% 증가한 1만5733대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3월 등록은 전년 동월 1만2063대보다 30.4% 증가했으며, 2014년 1분기 누적 4만4434대는 2013년 1분기 누적 3만4964대보다 27.1% 증가한 수치다.

3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3511대로 선두를 기록한 가운데 메르세데스 벤츠 2532대, 아우디 2457대, 폭스바겐 2255대, 포드 792대, 렉서스 593대, 토요타 504대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형성했다. 그 뒤로 크라이슬러 426대, 미니 401대, 혼다 332대, 랜드로버 322대, 인피니티 310대, 푸조 266대, 닛산 247대, 재규어 218대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전무는 "3월 수입차 신규 등록은 본격적인 판매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및 적극적인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의택기자

kt금호렌터카 컨버블 추가… 꽃비 맞으러 출발

때이른 더위로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꽃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절정을 이루며 봄을 만끽하려는 여행객들이 전국의 봄꽃 명소를 찾아 떠나고 있다. kt렌탈의 전국 170여개 최대 영업망과 9만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 kt금호렌터카는 봄꽃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더하고자 최신형 럭셔리 컨버터블 차량 6종을 도입,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kt금호렌터카는 지난 성수기를 앞두고 아우디 A5 카브리올레와 벤츠 SLK, BMW 미니를 단기 렌터카 상품으로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에 아우디 TT와 벤츠 E 카브리올레, BMW 미니S가 추가 도입돼 총 6종의 차량으로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태균기자 ksgit@

'바퀴 주저 앉은' 쌍용차 은폐 의혹

SBS 결함 보도 이어 소비자 증언 잇따라

강력한 구조조정 이후 판매가 살아나던 쌍용자동차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렉스턴과 액티언, 뉴 카이런 등의 바퀴 주저앉음 현상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다.

주차장을 서행하던 중 바퀴가 주저앉은 쌍용차 렉스턴. /출처='중고차 고부장' 블로그

6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렉스턴2와 액티언 등은 주행 중 바퀴 축이 부러지며 주저앉는 현상이 다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자동차 결함 신고 코너를 보면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상당수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SBS는 결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 방송에서 쌍용차의 홍정표 품질경영팀장은 "운전자가 수시로 차체를 들어 올려서 하부 구조를 점검해야 하고, 부품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해줘야 한다"면서 문제를 소비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있다. 월간 모터매거진의 황욱익 기자는 "로워암에 들어가는 볼조인트는 고무 부싱으로 감싸져 있어 주행 거리가 오래될 경우 교환하는 게 좋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제때 교환하지 않는다고 바퀴가 주저앉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영구적인 차체 부품은 있을 수 없고 피로도가 쌓일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쌍용차의 결함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홍보팀의 차기웅 차장은 "관련 내용은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문제가 된 차들은 대부분 7년 이상 된 차였는데, 관련 부품은 고무가 삭을 수 있고 이물질이 유입돼 크랙(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최소 3년마다 점검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다.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결함 내용을 접수한 박모씨는 "쌍용차가 2012년 7월에 로워암 구조를 변경했다"면서 "그러나 2012년 11월에 구입한 내 차도 종전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고 소진 때까지 문제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호회에서는 문제 부품의 마모 현상에 대한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내 차도 주행 거리가 4만㎞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모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된 부품을 장착하려 했더니 쌍용차 측에서는 문제없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불법 개조가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아찔한 사고를 겪은 운전자의 증언은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쌍용차의 바퀴 주저앉음 현상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임의택기자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런to호주 | TOURISM AUSTRALIA 호주정부관광청 | Queensland Where Australia Shines |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호주만큼 멋진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Run To Australia

꿈꾸던 휴가가 현실이 되는 멋진경험, 지금 바로시작하세요!

Honeymoon

시드니 ★관광+스냅촬영 6일
1,990,000부터 ●시드니(4)
● 50만원 상당의 허니문 스냅촬영 무료 포함, 미니액자 제작

멜번 ★그레이트 오션로드 6일
2,490,000부터 ●멜번(4)
● 커피향 가득한 멜번 시내 카페투어, 오페라하우스 내부관람

골드코스트 ★커럼빈+요트 6일
2,490,000부터 ●골드코스트(4)
● 골드코스트 5성급 호텔, 헬기투어, 오페라하우스 내부관람

탕갈루마 ★난파선투어 6일
2,850,000부터 ●골드코스트(4)
● 디럭스룸 업그레이드, 야생돌고래 먹이주기, 샌드사파리투어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 내역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포함 (단, 개별여행 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 외 별도지불 하셔야 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나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바랍니다.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 ■ 하나투어 : 일반여행업 등록 제 26004-1993-6(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최소 출발인원 : 10명
■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관광 불편신고 Tel. 1644-0166(ARS 안내번호 9번) ■ 숙소 : 2급 호텔 이상
※상기 상품의 행사는 (주)하나투어에서 주관합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허니문 상담팀 02) 2127-1234

종이신문과 스마트폰의 공생

뉴스룸에서
이 국 명
<경제산업부장>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집안 모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종이신문이다. 당시만 해도 한 개는 기본이고 두세 개씩 신문을 배달받는 가정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신문을 배달시켜 보는 가정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하철역에만 가면 메트로신문 등 무료신문을 볼 수 있는 데다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의 탓이 가장 클 것이다. 이 때문에 온 가족이 신문을 함께 읽는 정겨운 장면도 점점 추억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라진 것이 이것만은 아닌 듯하다. 지난 3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10년간 교육에 투자해온 결과를 토대로 미래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하면서 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들이 'Ctrl+C'(복사), 'Ctrl+V'(붙이기) 기능에 익숙해지면서 긴 문장을 요약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런데 이날 한국MS 공공사업본부 전제민 이사가 싱가포르 학교에서 목격했다며 소개한 사례는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만지는데도 선생님이 제재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종이신문을 읽으며 트위터에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문장 요약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종이신문이기 때문에 'Ctrl+C' 'Ctrl+V'가 불가능한 데다 트위터에는 최대 140자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긴 신문기사를 올리려면 요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면서도 종이 매체를 친근하게 만들고 요약 능력까지 향상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에 달했다. 하지만 이미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을 청소년에게서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교실처럼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받은 메트로신문을 집으로 가져가 아이들과 요약해 트위터에 올리는 게임을 한다면 신문을 함께 읽는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중독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지도 모른다.

재벌총수들은 국민정서를 외면하고 있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재벌 총수들의 연봉이 일반에 공개되자 파문이 가시질 않고 있다. 굴지의 그룹 총수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상식을 벗어난 거액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4곳의 등기이사로 작년에 모두 301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131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140억원을 받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이사를 맡지 않아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도 이러한 연봉 규모는 선진국 기업과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정서로 보아 이러한 재벌 총수의 연봉이 합당하다고 수긍할 사람은 드물다. 최태원 회장만 해도 회사 돈 450억원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고 김승연 회장 역시 2012년 8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2월에야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다.

일부 총수들은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연봉을 챙기기도 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GS에서 21억6500만원, GS건설에서 17억2700만원을 받았다. GS건설은 지난해 8273억원의 적자를 낸 회사다.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도 회사는 427억원의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42억4100만원이나 타갔다.

재벌 총수들은 경영 성과에 따라 주식배당금으로 부를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는 입장이다. 미국의 글로벌 스타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해 단돈 1달러의 연봉을 받았으며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0년 동안 1달러만 받았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이들을 반드시 닮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반기업 정서가 강해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도 최고 연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부결되기는 했지만 최고 연봉 규제를 놓고 국민 투표에 붙여진 일이 있다. 우리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재벌 총수의 연봉이 정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와 비공개 법인도 일정 규모 이상은 공개해야 마땅하다.

포토프리즘 "벚꽃 보러 서울 왔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여의도 벚꽃축제가 한창인 서울 여의도 공원을 찾은 나사렛대 학생들이 벚꽃나무 아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에서 올라온 이 학생들은 "벚꽃이 보고 싶어 충동적으로 서울행을 결정했는데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는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 손진영기자 son@

사후약방식 피해보상 안된다

기자수첩
김 현 정
<경제산업부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동양 관계인집회는 넘치는 인원을 소화하지 못해 비어있는 옆 공판장과 지하 식당에까지 방청 자리를 마련했다.

최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만여 명,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 피해를 낸 동양 사태의 단면이었다.

동양 측이 투자금의 55%는 주식으로 돌려주고 45%는 10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내놓자 회장은 고요해졌다.

짐을 챙겨 말 없이 집회장을 떠나는 노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투자자만 피해를 본 것도 아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 중에 집 등 재산을 차압당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반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지난달 말 첫 재판을 받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낙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경영 실패"라며 이를 부인했다.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 부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만 총 50억원 이상을 받았다.

부실 기업의 손실을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한 금융 당국의 책임도 크다.

결국 경영진의 방만 경영에 한 푼, 두 푼 평생 성실하게 돈을 모아온 일반 투자자들만 한순간 돈을 날리고 언제 돈을 돌려받을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집회장 문을 나서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만큼이나 오랜 체념이 느껴졌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불완전 판매와 부실 CP 발행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 질서가 조속히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목요연(一目瞭然)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란다. 한쪽 눈이 없는 어느 정치인이 상대 정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자, 반박할 근거를 대지 못한 쪽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눈도 하나밖에 없는 주제에." 그러자 공격을 받은 의원이 "네, 저는 한쪽 눈밖에 없어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꿰뚫어볼 수 있지요"라고 응수했다. 폭소가 터지고 인신공격을 한 쪽은 완패한 꼴이 되었다.

'일목요연'의 본래 뜻은 한눈에 척 봐도 명쾌하게 드러난다는 건데, 그걸 눈 하나밖에 없는 정치인은 멋진 반격의 부메랑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 존엄한 사회의 감정사회학을 제창하고 있는 김찬호 교수가 최근에 펴낸 책 '모멸감'에 소개된 실례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선거 중에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는 모함에 대해, "그게 사실이면 감히 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모멸의 대상을 도리어 그 사람만이 가진 장점으로 역전시킨 발상의 유쾌함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재치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대개는 모멸의 언사나 행위로 인해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받는다. 좌절과 분노, 또는 슬픔은 모멸이 가하는 학대의 결과다. 힘이 없거나, 출신이 처진다고 여겨지거나, 가난하거나, 행색이 남루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해 행위를 별 부담 없이 하게 만드는 조건들이 된다.

다들 그 저주의 목록에서 빠져나오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그 경쟁은 또 다른 상처와 모멸의 무대가 된다. 악순환이다.

박재동 화백이 전시회를 하고 있다. 벽에 걸린 그림 하나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다.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가?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에서 산다. 그렇지 못하면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 죽고 싶어 한다. 이것이 사람이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관계 속에서 명쾌하게 토로하고 있다. 모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회나 관계는 죽음의 병을 키워가는 곳이다.

상대를 밟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우월감은 행복이 아니다." '모멸감'의 한 대목에 적힌 글귀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자기의 권세로 약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 사회는 비루하다.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이는 한눈에 척 봐도 그 얼굴빛이 남다르다. 일목요연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 한쪽 눈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엄홍길휴먼재단 '무료 인공관절' 후원

저소득층 노인 퇴행성관절염 환자 전화·인터넷으로 수술비 지원 신청 접수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노화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해 관절 내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연골은 무릎 내에 위치해 완충 작용을 하며 관절의 운동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연골은 혈관이 없는 조직으로 한번 손상되면 자체적으로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는다.

또 연골이 닳아 손상돼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퇴행성관절염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평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고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생긴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런 퇴행성관절염은 연골 손상 정도에 따라 관절염 초·중·말기 세 단계로 나뉜다. 무릎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서로 맞닿은 상태인 퇴행성관절염 말기에 이르면 인공적인 관절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인 초·중기에 질환을 발견한다면 아직 남아있는 연골을 재생해 건강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다.

◆'줄기세포 연골재생술' 큰 도움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켜 관절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는 아직 분화하지 않은 세포로 적절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신체 부위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 세포로 분화하는 특징이 있다. 즉 무릎관절 병변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연골로 분화해 재생이 촉진된다. 게다가 관절염 치료에 이용되는 줄기세포는 환자의 골수와 지방, 그리고 타인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성체 줄기세포로 부작용이 적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연골 손상이 경미한 관절염 초·중기 환자들에게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소외층 노인에 '무료 치료' 손길

문제는 줄기세포 치료가 최근에 도입된 치료법으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은 치료에 대한 걱정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을 받게 된다. 실제로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이 많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이 많다.

이에 산악인 엄홍길(사진) 대장이 설립한 엄홍길휴먼재단(이사장 이재후)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엄홍길 대장의 의지에서 시작된 '무료 줄기세포 치료 캠페인'을 통해서다.

캠페인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은 이번 캠페인의 주관사로서 저소득층의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엄홍길휴먼재단 엄홍길 상임이사는 "줄기세포 치료의 우수한 효과가 국내외로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무릎 건강을 되찾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재용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 전화: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 인터넷: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신부 얼굴 시술때도 '과속 스캔들' 조심

결혼전 피부관리 주의점 단기 고강도 치료 역효과

결혼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특히 신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결혼식 전에 피부 관리나 시술을 받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6개월 전부터 계획 세워야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성 중 피부과를 찾는 사람의 대부분은 여드름과 같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이다. 질환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질환 치료가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또 결혼을 앞두고 피부톤을 밝게 만들기 위해 관리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특히 화이트닝 관리는 많은 예비 신부들이 받는 관리 중 하나인데 간혹 점이나 잡티를 제거한 뒤 일시적으로 색소가 더 짙어 보이는 경우가 있어 치료 시기나 방법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시술을 할 때 그 기간이 짧아지면 결혼식 당일에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효과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술 강도를 높이면 부작용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치료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져 결혼식 당일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셈이다.

만약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이라면 시술을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중 피지 분비와 여드름균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이 가임기 여성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여성이라면 효과가 빠른 동시에 임신 계획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광선 치료나 여드름 전용 레이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현재 임신 중인 상태라면 레이저 치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레이저 시술 자체는 안전하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레이저 시술 시 환자가 받는 심리적 불안감 등도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은상 웰스피부과 원장은 "결혼 전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여성은 피부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질환 치료는 물론이고 간단한 미용 시술이라도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일자목 골퍼 라운딩 전 잠깐!

스트레칭 통해 긴장 풀고 정확한 어드레스 동작을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인구가 늘고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자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지금 일자목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특히 골프를 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일자목은 정상적인 목보다 앞쪽으로 목을 내민 상태를 말한다. 평소 뒷목이 뻐근하거나 뭉치는 느낌, 어깨가 무겁고 뒷골이 땅기면서 두통이 있거나 눈이 뻑뻑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일자목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일자목이 되면 잘못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잘못된 자세가 골프를 즐길 수 없게 한다. 경추 염좌나 디스크를 유발하고 무리할 경우에는 일자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목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어깨가 충분한 회전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스윙 시 팔의 움직임이 작아지고 목 뒤 관절에 손상을 준다. 이것이 반복되면 경추 염좌나 디스크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목인 사람들은 라운딩 전 반드시 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목과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고 골프 시 정확한 어드레스 동작을 세심히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골프 후 허리 통증이 느껴지면 몇 주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 허리 인대나 근육이 늘어난 단순 염좌인 경우는 골프를 쉬면 개선되지만 통증이 극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디스크 탈출증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술 마케팅, 연극·전시 옷 입다

직접적 노출광고 대신 문화상품과 접목 바람

새봄을 맞아 국내 주류 업계가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라면 직접적인 노출 광고 대신 연극이나 파티·전시회·패션쇼 등을 통해 제품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등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 각 주류 업계는 본격적인 성수를 앞두고 신상품을 쏟아내며소비자들로부터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맥키스사는 KBS 2TV 개그콘서트 인기 개그맨이 출연하는 관객 참여형 음주 코믹 연극인 '대박포차'와 연계 행사를 벌인다.

이 작품은 포장마차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극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달빛극장에서 공연한다. 매주 금요일 공연 후 출연진과 관객들의 음주 토크가 열려 관객들이 출연 개그맨들과 함께 맥키스를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주류 전문기업 아영FBC의 '힙노틱'은 지난 3월 12일 오페라 갤러리에서 진행한 '더 그레이트 아메리칸 아이콘즈' 전시의 오프닝 파티로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팝아트 거장들의 작품 감상과 함께 핑크와 블루의 아름다운 힙노틱 칵테일들이 제공되어 색다른 조화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신상 주류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독일·프랑스·체코 등 유럽에서의 명성과 달리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리큐르인 압생트, 브랜디인 에뜨왈XO, 사케인 다카시미즈와 아마노토, 에너지 맥주인 믹서리 등 총 4종을 출시한다.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에서도 면세점 한정 제품으로 와인을 닮은 '글렌피딕 캐스크 컬렉션' 3종을 출시한다.

오비맥주는 이번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정통 영국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 맥주인 '에일스톤'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등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오비맥주가 자체적인 브랜드명으로 에일맥주를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영일기자 prms@

장수음료 삼총사, 청춘음료로

맥콜·써니텐·칠성사이다 핫스타 모델·젊어진 광고

매년 국내 유통업계를 통해 수백개의 신제품이 쏟아져나온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생존하는 제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강산이 세 번 바뀌는 긴 세월의 흐름 속에도 변함없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산 장수 음료가 있다. 일화의 맥콜과 코카콜라의 써니텐,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등 음료 삼총사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해당 음료들이 젊어지기 시작했다. 10~20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20대 훈남 스타 모델 발탁을 비롯해 광고 콘티부터 젊은 감각의 스토리텔링 행사를 벌이고 있다.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젊어진 이들 장수 음료 삼총사의 노력이 업계 내부에서조차 화제가 되고 있다.

◆맥콜, 훈남 스타 주원 내세워

올해로 발매 32주년이 된 국내 최초의 보리 탄산음료인 일화의 맥콜은 배우 주원을 모델로 발탁했다. 이를 통해 '제2의 맥콜 신화'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주원은 4월 중순부터 맥콜 신규 광고에서 보리검을 든 무사로 변신해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미와 순수한 매력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코믹한 콘셉트로 1020세대의 마음을 잡는다는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써니텐, '스무 살·포텐' 어필

1976년 "흔들어주세요"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출시된 코카콜라의 써니텐은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를 전면에 앞세워 스무 살의 젊고 경쾌한 이미지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써니텐의 새 TV 광고는 '엑소' 멤버 12명 전원이 출연해 각각의 개성 있는 춤과 노래로 '상큼하고 짜릿한 써니텐으로 스무 살의 포텐을 터트려라'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젊은층 사이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칠성사이다, '청춘은 별!' 캠페인

1950년 선보여 64년을 장수한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는 최근 기념일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를 겨냥해 데이 마케팅인 '사이다데이'(4월 2일)를 기획해 선보였다.

또 배우 이현우와 진세연을 모델로 발탁해 청춘과 교감하는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팍팍한 현실 속에 위로가 필요한 청춘의 꿈과 열정을 응원한다는 내용의 신규 캠페인을 진행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봄바람 난 돼지, 쫄면·화덕 '풍덩'

황사철 이색 외식 메뉴들

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황사. 호흡기 질환·피부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황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에 좋다는 돼지고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겹살로 대표되던 돼지고기가 최근에는 다양한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색다른 요리로 무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분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의 '어간장 육감쫄면'은 양배추·콩나물 등 채소와 버무려진 기존 쫄면과 달리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독특한 쫄면이다. 고추장으로 만든 빨간 소스 대신 문순천 명인의 제주 어간장과 양념 갈비 소스에 재운 돼지고기 등이 부추와 어우러져 색다른 색감과 고급스러운 쫄면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도심 속 캠프장 콘셉트의 고깃집 프랜차이즈 '구이앤캠프'가 최근 선보인 신메뉴 '웰빙삽겹'은 간장 베이스의 양념을 사용한 양념갈비와 달리 콩 성분이 함유된 된장 양념 베이스를 사용해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캐러멜 색소를 전혀 넣지 않아 색다른 식감을 준다.

족발 프랜차이즈 '화덕에 통째로 구운 족발'은 새로운 개념의 족발로 인기몰이 중이다. 3시간 동안 정성스레 삶은 족발을 400도의 천연 화산석 화덕에 고기를 통째로 구워 내 기름기는 쏙 빼고 담백함과 쫄깃함이 배가됐다.

콩나물&불고기 전문점 '콩불'은 의성 흑마늘 추출물을 먹고 자란 콩나물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넣어 콩나물불고기를 완성했다. 1년6개월 동안의 개발과 연구 과정을 거친 독창적인 메뉴로 얇은 돼지고기의 쫄깃한 맛과 콩나물의 아삭함이 환상 궁합을 보여준다. /정영일기자 prms@

화제의 '어벤져스' 공식 완구 출시 최근 '어벤져스2' 한국 촬영과 더불어 '캡틴아메리카2'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등의 연이은 개봉 소식에 따라 마블코믹스 완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월트디즈니 정식 라이선스 인증을 받은 '어벤져스' 완구 신상품 출시를 2주 앞당겨 7일부터 전국 135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대유몽베르 골프장 '그린피 무료' 이벤트

경기 포천의 대유몽베르 골프장이 4월 한 달간 매일 4팀에게 그린피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추첨을 통해 매일 1명에게 4인 그린피 무료 이용권, 다른 1명에게는 36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고 홀인원을 기록하는 골퍼에게 18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준다.

1일부터 11일까지 남 코스를 최저 8만~12만원, 북 코스는 시간대별로 최저 9만~13만원으로 할인한다.

이외에도 정회원 및 가족 회원은 생일 주간에 방문 시 그린피 면제, 인터넷 회원은 회원 요금을 적용하는 행사도 연중 실시한다. 또 인터넷 회원 가입 시 1만원의 그린피 할인 및 오후 5시 이후 레스토랑의 전 메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슬렌더톤 사업설명회

수입 스포츠용품 전문회사 큐월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1-6번지 실로암빌딩 2층 큐피트에서 슬렌더톤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20명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된다. 전화 접수: 02)465-1588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효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8

카누 '에피 어워드'서 금상

동서식품 카누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캠페인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에피 어워드에서 국내 식음료 브랜드 최초로 신규 제품 및 서비스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은 실질적 마케팅 성과에 초점을 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성과 어워드로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마케팅 전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등을 선정한다.

동서식품 카누는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2013 아시아 마케팅 효율성 페스티벌(FAME)에서 국내 브랜드 캠페인 최초로 음료 부문과 베스트 인사이트 부문에서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뜨는 신상품마다 '봄꽃' 담았네

흰 감국 성분의 한율 화장품·뉴발란스 999 체리블라썸 등 소비자 유혹

꽃은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매년 봄이 되면 뷰티·패션·요식 등 여러 업계에서 꽃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한다. 올봄에도 꽃의 우수한 성분을 담거나 꽃의 아름다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한방 화장품 브랜드 한율은 미백라인에 강원도의 흰 감국 성분을 담았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3000여 종 중 감국만이 유일하게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흰 감국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처방 원료이면서도 귀한 미백 원료다. 청정한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흰감국은 빠르고 확실하게 기미·잡티·칙칙함 개선은 물론 기미 사슬을 끊어 기미 피부 체질까지 개선해준다.

도브의 신제품 '도브 고 후레쉬 리스토어 너리싱 바디워시'는 오렌지 꽃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손상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함께 함유된 무화과는 피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며 도브만의 독자적인 보디워시 기술인 '뉴트리엄 모이스쳐'가 피부 깊숙이 영양 보습을 선사한다.

벚꽃을 콘셉트로 한 뉴발란스의 999 체리 블라썸은 출시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시즌 트렌드인 파스텔 컬러 디테일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 제품은 스웨이드와 매시원단을 사용했으며 쿠셔닝 기술인 '애브조브 시스템'을 신발 뒤꿈치에 적용해 착화감이 우수하다.

CJ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 쁘띠첼은 4월 한 달 동안만 판매되는 스프링 플라워 에디션을 출시했다. 꽃이 흩날리는 봄 산책로에서 모티브를 따 제품 패키지를 디자인했으며 특수 인쇄를 통해 꽃 문양과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 홀로그램처럼 반짝거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고객층인 20~30대 여성 대상의 감성 마케팅의 일환으로 꽃 나들이에 함께하면 좋은 디저트라는 이미지도 강화하기 위해 출시됐다.

차(茶) 브랜드 오설록은 제주 유채꽃을 담은 봄 시즌 한정 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 삼다연 유채허니 라떼와 그린티 유채허니 라떼는 기존 라떼와 달리 제주 유채꿀의 달콤한 맛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월드컵 트로피 진품 방한

코카콜라사는 진품 트로피 방한을 맞아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브라질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FIFA 진품 월드컵 트로피' 언론 공개 행사를 가졌다.

이번 언론 공개 행사에는 한국 코카콜라 이창엽 대표이사,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FIFA 홍보대사 자격으로 온 전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크리스티앙 카랑뵈 등이 참석해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의 성공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데님·체크·옥스퍼드…'셔츠 훈남' 시선집중

패션피플 기본 아이템 소재·패턴따라 다른 멋

셔츠는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베이식한 디자인부터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본 패션 아이템으로 가장 선호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올봄 패션 피플이 되고자 한다면 셔츠부터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흔하지만 다른 의상과 매치할 때 트렌디한 멋을 낼 수 있는 제품으로 단연 데님 셔츠가 꼽힌다. 데님 셔츠의 매력은 색상과 워싱 정도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 사소한 디테일 차이만으로도 다양한 느낌을 발산할 수 있다.

특히 스카이블루 색상의 워싱이 옅은 데님 셔츠는 모던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을 연출해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다. 아울러 라이트한 데님 컬러는 상대적으로 얼굴도 밝아 보이게 해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좋다.

반면 생지 느낌의 색상이 짙은 인디고 데님 셔츠는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안에 매치하면 시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깔끔하고 심플한 멋을 뽐냈던 옥스퍼드 셔츠가 올해 디테일에 신경 쓸 전망이다. 올봄 옥스퍼드 셔츠는 스트라이프 패턴·컬러 블록·배색 포인트 등 디테일에 신경을 써 활기를 더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체크셔츠는 한 벌쯤은 가지고 있는 기본 아이템으로 패턴 자체가 포인트가 돼 셔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다만 체크의 종류가 다양해서 자신에게 어떤 체크 패턴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면 기본 패턴인 깅엄 체크셔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구석구석 낀 황사·미세먼지 청소기 돌린 후 물청소해야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황사에는 중금속과 미세먼지, 유해 세균이 들어있어 호흡기와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한다. 특히 올해는 평소보다 세균 농도가 7배 높은 '슈퍼 황사'가 불어온다는 소식이 있어 실내 청소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머리카락의 200분의 1 크기인 미세먼지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 배출구로 새어 나와 오히려 더 넓게 퍼질 수 있어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인지, 먼지를 어떻게 모으고 먼지통을 비우는 방식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청소기를 돌린 후에는 반드시 물청소를 병행해 바닥에 가라앉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하며 손 걸레질을 할 때는 분무기로 먼저 물을 뿌려둔 뒤 진행하면 미세먼지가 물방울에 흡착돼 효과적이다.

창틀과 방충망에 낀 황사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환기 시 실내로 먼지가 쉽게 유입될 수 있어 창틀과 방충망을 완벽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 분리가 되지 않는 방충망은 신문지에 물을 흠뻑 적셔 방충망에 붙였다 떼어내기를 반복하면 먼지가 신문지에 달라붙어 나온다. 창문에서 분리가 가능한 방충망은 사용하지 않는 샴푸를 뿌리고 칫솔이나 청소솔로 구석구석 문지르면 된다.

/정혜인기자

이마 드러낸 남자1호…댄디파마한 남자2호

공채 면접 합격률 높이는 회사별 선호 헤어스타일

본격적인 상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됐다. 취업의 최종 관문인 면접에서 남자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헤어 스타일이다. 면접에서는 깔끔하면서 단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획일화된 스타일은 자칫 밋밋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 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회사에서는 단정하면서도 스마트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긴 머리는 피하고 앞머리는 이마를 덮지 않게 모두 올려야 답답한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도전적이고 패기 넘치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평소 인상이 강한 편이라면 헤어에 볼륨감을 줘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세팅한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드라이로 머릿결의 방향을 정리하고 클레이 타입의 헤어 왁스를 이용해 소량만 덜어 투명해질 때까지 잘 비벼준 후 머릿결 방향대로 쓸어 넘긴 다음 깔끔하게 빗으로 한 번 더 마무리한다.

개성을 중시하는 마케팅·디자인·광고 등의 회사 면접 시에는 정형화된 스타일보다는 단정한 느낌을

주면서 약간의 트렌디함을 가미해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다. 직모나 곱슬머리는 댄디 파마를 통해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손쉽게 손질할 수 있다. 웨이브 머리의 경우 강한 홀딩력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스타일링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딱딱하지 않으면서 컬을 유연하게 잡아주는 왁스를 사용한다. 뻗치는 옆머리는 전용 왁스를 이용해 눌러주면 된다.

/정혜인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이 남자, 눈빛도 연기도 깊어졌다

'감격시대'로 거친 남자 완벽 변신 김현중

KBS2 수목극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에서 신정태로 거친 남성미를 드러낸 배우 김현중(27). '꽃보다 남자'(2009)와 '장난스런 키스'(2010) 속 아이돌 꽃미남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1930년대 신정태를 표현하기 위해 손톱을 길러 때가 낀 것처럼 분장하는 열정을 보인 그는 작품을 통해 김현중의 재발견이란 호평을 듣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까맣게 탄 피부에 투신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여전히 TV 속 신정태를 보는 듯했다.

◆ 여동생 청아와 감정신 어려워

김현중은 연기력 호평에 대해 "마음이 들뜨다 보면 대사톤이 뜰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라앉히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며 신정태에만 몰두했음을 밝혔다.

작품에서 날것의 싸움부터 무술, 검술까지 연마하며 싸움의 신으로 거듭난 그는 "무술감독이 특공·살인 무술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다. 시청자 중에는 '한 대 맞고 죽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술감독이 한 대를 때리더라도 죽을 수 있는 곳을 쳐야 한다고 해서 영춘권 같은 무술도 알려주셨다"며 "처음엔 어려웠는데 액션에도 사랑·증오·복수가 담겨있다고 해서 강약 조절을 하며 연기하다 보니 감정이 많이 묻어날 수 있었다"고 액션 연기를 한 소감을 전했다.

'감격시대'는 종영 전 출연료 미지급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김현중은 "풍파가 많았지만 안정되고 차분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건 출연하는 배우들의 힘이 컸다"며 "선배 모두 자기 캐릭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24시간을 기다리는 등 시간과의 싸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배웠다"고 조심스럽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터뷰 내내 신정태의 눈빛과 표정을 보이던 그는 "어제(4일)가 대본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할 게 없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했다. 가야(임수향)에게 '뭐 하냐'고 문자를 보내니까 '끝난 대본을 읽고 있다'고 답해 나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 모두 같은 심정인 것 같다"고 말해 여전히 역할에 빠져있음이 느껴졌다.

◆ 배우·가수로서의 행보

'감격시대'는 초반 SBS '별에서 온 그대' 열풍에 주춤했다가 뒷심을 발휘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현중도 "첫 방송 시청률이 6~7%로 나와서 안 떨어지길 바랐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식당에 가면 술 취한 아저씨들이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걸 보면 남성 팬이 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싸움의 신 신정태 열연 호평… 남성팬도 늘었어요 물같은 배우 되고파… 가수활동 대중에 한발짝 더"

이어 "캐릭터를 사랑하지 않으면 연기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처음 했고 역할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다 보니 작품이 끝나도 눈이 미세하게 달라져 있다"며 '감격시대'와 신정태를 향한 애정을 내비치며 변화된 외모와 연기관에 대해 스스로 신기해했다.

김현중은 2005년 그룹 SS501의 리더로 데뷔한 가수 출신 연기자다. '감격시대' OST '오늘이 지나면'을 부른 그는 "극 초반에 곡을 받았지만 시청자가 신정태에게 익숙할 때쯤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작품 마지막 회에 곡을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그룹 해체 후 배우 겸 솔로 가수로서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그는 "국내에선 활동을 별로 안 한다.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었지만 주변에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해줬다"며 가수로서 국내 체감 인기가 낮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이어 "다음 앨범은 팬과 대중,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 후크송은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나 싶어 고집보다는 대중에게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 출연 계획에 대해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나리오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주연은 배워야 할 게 많다. 작은 것부터 하고 싶다"며 스크린 속 김현중의 모습도 기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확고한 이미지 없이 작품에 맞게 기억되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김현중은 '감격시대'를 통해 아이돌 출신 연기자가 아닌 배우 김현중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는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등 아시아투어를 통해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악동뮤지션이 5일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열린 데뷔 앨범 '플레이' 청음회에 깜짝 등장해 라이브를 선사했다(왼쪽). 궂은 날씨에도 악동뮤지션을 보기 위해 5000여 명이 몰렸다.

악동뮤지션 순수음악에 5000명 '들썩'

데뷔 앨범 수록곡 공개 행사 열려… 음원 오늘 선봬

악동뮤지션(이찬혁·이수현)이 데뷔를 앞두고 폭풍 인기를 예고했다.

이들은 5일 성수동의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데뷔 앨범 청음회 '플레이 인 서울숲'을 개최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행사 전 비까지 내리는 악조건에도 5000여 명의 시민들과 팬이 운집했다.

7일 데뷔 앨범인 정규 1집 '플레이'의 정식 음원 공개에 앞서 11개 수록곡을 공공장소에서 모두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사로, 신곡을 먼저 접하기 위한 팬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앨범은 이찬혁이 전곡의 작사·작곡·프로듀싱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타이틀곡 '200%'와 '얼음들' 외에도 '길이나' '인공잔디' '가르마' 등 기발하고 참신한 제목의 곡들로 눈길을 끌었다.

청음회는 악동뮤지션만의 톡톡 튀는 가사와 그들만의 감성과 순수한 시선으로 재해석한 음악들이 흘러나와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팬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10번 트랙이 공개될 때 악동뮤지션이 깜짝 등장해 10번 '소재'와 11번 '갤럭시'를 라이브로 불렀고,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성원에 힘입어 즉석에서 '인공잔디'를 앙코르곡으로 불렀다.

유기농 음악으로 채운 오가닉 앨범을 표방하는 악동뮤지션은 봄을 맞은 숲과 어울리는 꾸밈없는 화사한 의상과 어쿠스틱한 음악으로 변함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이들은 "기존의 색을 넣을까, 감춰진 모습을 선보일까 고민하며 앨범 작업을 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 고민 끝에 섞어서 냈으니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앨범 발매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SBS 'K팝스타 시즌2' 우승자인 악동뮤지션은 6일 방송된 시즌3 준결승에 출연해 새 앨범 타이틀곡 '얼음들'과 '200%'를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음원은 7일 낮 12시, 오프라인 앨범은 9일 공개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크레용팝 닭다리춤 유행예감

신곡 '어이' 뮤비 4일만에 유튜브 조회 200만건 돌파

걸그룹 크레용팝(금미·엘린·초아·웨이·소율·사진)의 신곡 '어이' 뮤직비디오가 공개 4일 만에 유튜브 조회 수 2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1일 공개된 '어이' 뮤직비디오는 5일 오후 9시께 유튜브 조회 수 200만 건을 넘었으며 6일 오전 9시 현재 209만8569건을 기록 중이다. 신곡 '어이'는 트로트풍의 멜로디와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결합돼 새로운 느낌을 주며, 지친 삶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잘 살아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직렬 5기통 춤'에 이은 이번 포인트 안무는 닭싸움 동작을 응용한 '닭다리춤'으로 '닭다리 잡고 삐악삐악'을 외치며 웃음을 자아낸다.

/양성운기자 ysw@

'호텔킹' 두자릿수 시청률 출발

MBC 주말극 '호텔킹'이 두 자릿수 시청률로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MBC 주말극 '호텔킹' 1회는 11.7%(닐슨코리아·이하 전국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작 '황금무지개' 마지막 회 시청률 15.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지난해 11월 2일 방송된 '황금무지개' 첫 방송 10.9%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날 '호텔킹'에서는 호텔 씨엘 회장의 자살과 관련한 차재완(이동욱)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비롯해 철부지 상속녀 아모레(이다해)의 등장이 그려졌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SBS 주말극 '엔젤아이즈' 1회는 6.3%를, KBS2 새 파일럿 프로그램 '공소시효'는 5.6%를 기록했다. /양성운기자

'별그대' 잇는 인기드라마 '응급남녀'

종영 되기 전 9개국 수출 6개 지역서 판매 논의도

해피엔딩을 맞은 tvN 금토드라마 '응급남녀'(사진)가 국내 인기를 넘어 해외 수출 성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CJ E&M에 따르면 '응급남녀'는 종영이 되기도 전에 미국·중국·일본·홍콩·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캄보디아 등 9개국에 판매됐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유럽·남미 등 6개 지역에서 판매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추가 판매가 예상된다.

CJ E&M 콘텐츠해외사업팀 서장호 팀장은 "지난주 막을 내린 아시아 대표 콘텐츠 마켓인 '2014 홍콩 필름마트'에서 '응급남녀'가 큰 호응을 얻었다. 30개국 640여 개의 방송사, 배급사, 구매사 등이 모인 홍콩필름마트에서 '응급남녀'를 선보였는데 많은 동남아 국가에서 호평했다"며 "실제 몇 개 국가로부터 SBS '별에서 온 그대'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해외에서의 큰 호응에 대해 CJ E&M 드라마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진희 상무는 "로맨틱코미디에 대한 시청자들의 니즈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여주인공 송지효의 아시아에서의 인기도 큰 몫을 했다"며 "무엇보다 CJ E&M의 드라마 퀄리티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호평이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CJ E&M의 동남아 채널인 채널M에서는 21일 '응급남녀'를 첫 방송 한다.

'응급남녀'는 5일 마지막 회에서 이혼 부부 송지효와 최진혁이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재결합하며 끝을 맺었다. 케이블, 위성, IPTV 유료 플랫폼 평균 시청률 5.0%(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그 꿈의 무대에 도전하세요!

젊음과 열정으로 뜨거운 경연을 선보일 2014 H-Star Festival에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3월 10일(월) ~ 4월 27일(일)
- 참가작품 | 연극 | 뮤지컬 (창작 및 국내외 기성작품)
- 참가자격 |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
- 신청방법 | 우편접수(참가신청서 1부, 대본 및 악보 각 2부 제출)
- 심사방법 | 참가자격에 부합하는 예선 참가신청 단체
- 일시장소 | 2014. 4. 28(월) ~ 6. 29(일) 중 참가단체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
- 발 표 | 2014년 7월 1일(화)

본선	2014년 7월 31일(목) ~ 8월 10일(일) 한 단체당 1일 2회 공연			
	H-스타 워크숍		본선 참가단체 네트워크 강화와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기회	
	H-스타 공연예술특강		연극 • 뮤지컬 입문을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상 및 특전	공연제작지원금		대극장 각 300만원 | 소극장 각 200만원	
	단 체 상	연 극 / 뮤지컬	대 상	각 400만원 | 상장 | 트로피
			금 상	각 350만원 | 상장 | 트로피
			은 상	각 300만원 | 상장 | 트로피
			동 상	각 250만원 | 상장 | 트로피
	개 인 상	연 극 / 뮤지컬	희 곡 상	각 100만원 | 상장 | 트로피
			작 곡 상	*브로드웨이 해외연수
			연 출 상	*1 : 1 멘토교육
			연 기 상	*기성작품 오디션 • 리딩 참여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후보 등록

★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홈페이지 www.kapap.co.kr ★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hstarfest

H-스타 페스티벌 문의 02 741 1204

주최 | HYUNDAI MOTOR GROUP 사단법인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Korea 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oducers 주관 | H-스타 페스티벌 사무국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SB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HanPAC 한국공연예술센터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사)한국소극장협회 dongsoong art center HYUNDAI KIA HYUNDAI MOBIS

슈주-M '스윙' 中서 2주연속 1위

슈퍼주니어-M(사진)이 새 미니 앨범 타이틀곡 '스윙'으로 중국 CCTV 음악 프로그램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슈퍼주니어-M은 지난 5일 중국 전역에 생방송된 CCTV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지난달 29일 중국 최초의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첫 1위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누린 데 이어 5일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중국 현지에서의 높은 인기와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글로벌 중문음악 방상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ARS 투표, 온라인 투표, 음악 사이트 점수 등을 합산한 사전 점수는 물론 휴대전화 투표, QR코드 투표 등 방송 당일 진행되는 생방송 투표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슈퍼주니어-M는 MBC '쇼! 음악중심' 출연으로 인해 방송에 직접 출연하지는 못했다.

슈퍼주니어-M은 "한국 음악 방송 출연 일정과 겹쳐 직접 1위 트로피를 받지 못해 아쉽지만 항상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는 중국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나는 팝 댄스곡인 '스윙'은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화려하고 경쾌한 퍼포먼스인 이른바 '오피스 퍼포먼스'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슈퍼주니어-M은 6일 SBS '인기가요'에도 출연해 '스윙' 무대를 선사했다. /유순호기자

샤이니가 5일 멕시코에서 개최한 첫 단독 콘서트에서 빼어난 라이브와 힘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사하고 있다(위). 멕시코시티 아레나를 가득 메운 8000여 명의 관객들이 야광봉을 흔들며 열광하고 있다.

멕시코의 밤 홀린 샤이니

첫 단독 콘서트에 현지팬 8000명 환호… 공항서부터 월드스타급 대우

샤이니가 멕시코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고 월드스타급 환호를 받았다.

5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아레나에서 열린 샤이니 콘서트 '샤이니 월드 Ⅲ 인 멕시코'에는 8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며 열띤 함성을 쏟아냈다.

이번 공연은 샤이니가 데뷔 후 처음 개최하는 멕시코 단독 콘서트인 만큼 개최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지난 3일 저녁 멕시코시티 국제 공항에는 샤이니의 입국 현장을 보기 위해 수많은 현지 팬들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공항에 모인 팬들이 샤이니 멤버들의 사진과 이름, 한글로 쓴 다양한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다. 공항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샤이니가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가도록 해 글로벌 스타의 입지를 확인했다.

샤이니는 이번 공연에서 '누난 너무 예뻐' '줄리엣' '루시퍼' '링딩동' 등의 히트곡 퍼레이드와 앨범 수록곡 무대, 남미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마카레나' 무대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담은 25곡의 무대를 선사했다. 뛰어난 라이브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얻었다.

관객들도 샤이니의 첫 멕시코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생일(4월 8일)을 앞둔 멤버 종현을 위해 축하 노래와 함께 '생일 축하해, 종현아(JONGHYUN-AH)'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선보였다. 이어 마지막 곡인 '초록비' 무대에서는 '멕시코에서 빛을 내줘서 고마워. 우리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보여 멤버들을 감동시켰다.

샤이니는 7일 칠레 산티아고 무비스타 아레나에서 중남미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걸스데이 일본서 2000명과 팬미팅

6월 새 앨범 발표 예정

걸그룹 걸스데이(사진)가 새 앨범 작업에 들어간다.

6일 걸스데이 소속사는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귀국해 오는 6월께 발표할 새 앨범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걸스데이는 지난 5일 일본 시부야 아이아 시어터 도쿄에서 '걸스데이 스프링 팬미팅 썸씽'이라는 제목으로 총 2회에 걸쳐 2000여 명이 모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걸스데이는 '썸씽'을 시작으로 '한번만 안아줘' '기대해' '여자대통령' '아이 돈트 마인드' '쇼 유' '반짝반짝' 등 히트곡을 선사했고, 게임을 통해 한국에서 직접 사간 선물을 팬들에게 증정하는 코너 등을 진행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2시간 가까운 공연 시간 동안 모든 팬들이 서서 걸스데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게임에 참여하는 등 열정적인 팬심을 보여줘 걸스데이를 감동시켰다. /양성운기자 ysw@

대단해요 갓세븐

데뷔 3개월만에 日 쇼케이스 1만여 현지팬 눈·귀 사로잡아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예 그룹인 갓세븐이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 조짐을 보였다.

이들은 4일 도쿄 료고쿠 국기관에서 데뷔 쇼케이스 '갓세븐 쇼케이스 1st 임팩트 인 재팬'을 개최했다. 오후 4시와 7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쇼케이스에는 매회 5000명씩 총 1만 명의 팬들이 참석해 갓세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료고쿠 국기관은 2010년 선배 그룹인 2PM이 일본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개최했던 곳이라 갓세븐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데뷔 앨범의 수록곡 '여보세요'를 시작으로 타이틀곡 '걸즈 걸즈 걸즈', 2012년 JB와 Jr.이 JJ프로젝트를 결성해 발표했던 '바운스' 등을 선사했다.

이어 '플레이그라운드' '난 니가 좋아' '따라와'를 불렀고 특기인 마셜아츠 트리킹과 비보잉이 결합된 퍼포먼스로 현지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갓세븐이 국내 데뷔 3개월 만에 일본에서 첫 쇼케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며 향후 활약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갓세븐은 17일 오사카의 제프남바에서 두 번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KBS2 '미스터 피터팬'

SBS '도시의 법칙' 출연진

<KBS> <SBS>

공영성 높인 예능 vs 세대공감 예능

KBS 파일럿 '미스터 피터팬' 등 5개 편성… SBS '룸메이트' '도시의 법칙' 선보여

KBS와 SBS가 봄맞이 개편으로 예능 경쟁을 벌인다. KBS는 경쟁력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의 정규 편성을 고려 중이고, SBS는 세대 공감과 독창성을 무기로 'K팝스타 3'의 후속작과 시즌제 예능 방송을 이미 편성한 상태다.

지난 3일 KBS 봄 개편 TV 간담회에 참석한 전진국 KBS 편성본부장은 "경쟁력과 공영성 등을 평가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5월 중 정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KBS는 파일럿 '대변인들' '밀리언셀러' '미스터 피터팬'을 방송했고, '나는 남자다' '두근두근 로맨스'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

평가에선 '미스터 피터팬'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 4~5일 방송된 '미스터 피터팬'은 첫 번째 과제인 'RC카(무선 조종 자동차)' 도전 과정을 그리며 베테랑 예능인 신동엽·윤종신의 입담과 어색함이 신선했던 한재석·정만식·김경호의 모습이 잘 어우러져 재미를 선사했다.

실제 윤종신이 2일 프로그램 간담회에서 "근 10년 동안 리얼 예능은 유재석·강호동의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신동엽이 녹화 초반에는 어색해했었는데 노련한 진행자답게 신동엽식 리얼 예능을 만들어가더라"고 녹화 후기를 전한 것처럼 '미스터 피터팬'은 신선했다는 평가가 지대하다. 여기에 RC카 플래시몹으로 일반인 169명이 동호회에 신규 가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내 공익성까지 갖췄다는 호평이다.

KBS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 가운데 SBS는 세대 공감과 독창성으로 '룸메이트' '도시의 법칙'을 편성했다.

'룸메이트'는 'K팝스타 3'의 후속작으로 20일 첫 방송 된다. 하승보 SBS 예능국장은 지난 4일 SBS 봄 개편 간담회에서 "'시대 및 세대의 공감과 소통'이 올 SBS 예능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며 "'룸메이트'는 1인가구가 늘고 있는 현 트렌드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독신 남녀가 함께 집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시청자와 공유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의 법칙'은 '정글의 법칙' 이지원 PD가 연출하는 법칙 시리즈 두 번째 편인 도시 생존 예능이다. 장르와 소재의 참신함을 바탕으로 과감하게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미국 뉴욕에 무일푼으로 떨어진 다섯 스타들의 생존기를 그린다. 리얼 예능으로 현재 촬영 중이며 재미교포 출신 가수 에일리가 지난 3일 합류해 출연진의 도우미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하승보 예능국장은 "'도시의 법칙'은 6~8회 정도의 시즌제 형식이다"며 "지상파가 콘텐츠 면에서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SBS는 봄·가을 개편에 집중하기보다는 파일럿이든 시즌 형태든 제작을 해서 꾸준히 공급할 것이다"고 봄 개편 시기에 파일럿이 아닌 정규로 바로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중국판 '나가수' '아빠 어디가' 열풍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 시장을 흔들고 있다.

국내 인기를 기반으로 중국에 포맷이 수출된 중국판 '나는 가수다'가 중국 내 한류 열풍을 이끌며 두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판 '아빠! 어디가?'도 현지 인기에 힘입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후난위성TV에서 방송 중인 중국판 '나는 가수다'의 시즌2 방송은 금요일 오후 7시라는 황금 시간대에 편성돼 주요 드라마보다 더 높은 2.3%라는 평균 시청률, 최고 시청률 4.3%까지 기록하며 중국 예능의 새 역사를 썼다. 40개가 넘는 위성 채널이 있는 중국에서 시청률 대박의 기준은 1%다. 시청률 1%를 넘는 예능 프로그램이 5편도 되지 않는 시장에서 시즌1·2 모두 평균 시청률 2%를 넘긴 것은 경이로운 기록이다.

앞서 '아빠! 어디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2회가 방송됐으며 평균 시청률 4.3%, 최고 시청률 5.67%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다.

중국판 '나는 가수다'

MBC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의 성공에는 MBC '나는 가수다'의 포맷의 접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김영희 PD는 물론이고 조명과 음향·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MBC의 축적된 노하우가 포맷 수입 형태로 접목됐다"며 "김영희 PD는 중국 후난위성 프로그램을 자문하고 연출 지도하는 '플라잉 디렉터'를 맡아서 한 달에도 몇 번씩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며 프로그램을 지도해왔다"고 전했다.

김영희 PD는 시즌2 마지막 생방송을 앞두고 "중국판 '나는 가수다'가 성공적으로 시즌2를 마무리해서 기쁘다. 오는 6월에 중국판 '아빠! 어디가? 시즌2'가, 내년에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 시즌3가 방송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강남에 '하정우 숲' 생긴다

배우 하정우(사진)의 이름을 딴 숲이 서울에 조성된다.

하정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5일 "공식 팬클럽 '하울'(하정우의 울타리)과 디시인사이드 하정우 갤러리가 지난달 하정우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환경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팬들은 평소 나무나 식물 등을 좋아한다고 밝히며 환경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하정우를 위해 서울

강남 늘벗 근린 공원에 하정우의 이름을 딴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정우 숲'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며 꾸준히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팬들의 선물 소식을 전해들은 하정우는 향후 조성될 숲의 발전과 유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순호기자

강지영 어학연수·연기수업 위해 런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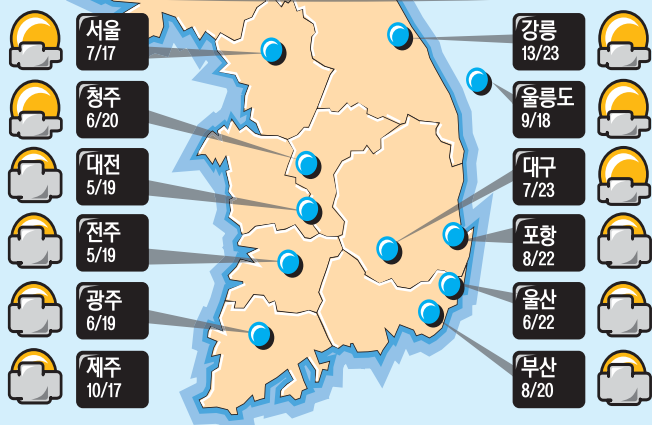
카라 탈퇴… DSP와 결별

카라의 강지영(사진)이 소속사 DSP미디어와 완전히 결별하고 영국 런던으로 떠났다.

DSP미디어는 5일 "강지영은 지난 1월 학업을 위해 유학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후 최근 휴식기를 가지며 유학 준비를 해왔으며, 오늘 오전 어학연수 및 연기 수업을 위해 런던으로 출국했다"며 "이와 동시에 강지영은 DSP미디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DSP미디어는 홀로서기를 선택한 강지영의 의사를 존중하며 새로운 도전에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5인조 여성 그룹인 카라는 니콜이 소속사 계약 만료와 함께 팀에서 탈퇴했고, 강지영도 학업을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유순호기자 sno@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3
				9	3	4		
	1			8	2		7	6
			8			6	3	
				6				
	9	6			1			
5	8		2	7			4	
		9	5	1				
6							2	5

8			5			3	1	
3			7	6	9	2		5
		7		1				
7							3	
				7				
	1							4
				8		6		
4		6	9	2	3			8
	7	8			6			3

스도쿠 정답

8	2	4	6	5	7	9	1	3
7	6	5	1	9	3	4	8	2
9	1	3	4	8	2	5	7	6
1	5	2	8	4	9	6	3	7
4	7	8	3	6	5	2	9	1
3	9	6	7	2	1	8	5	4
5	8	1	2	7	6	3	4	9
2	3	9	5	1	4	7	6	8
6	4	7	9	3	8	1	2	5

8	6	9	5	4	2	3	1	7
3	4	1	7	6	9	2	8	5
5	2	7	3	1	8	4	6	9
7	8	4	2	9	1	5	3	6
9	3	5	6	7	4	8	2	1
6	1	2	8	3	5	7	9	4
1	9	3	4	8	7	6	5	2
4	5	6	9	2	3	1	7	8
2	7	8	1	5	6	9	4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단골의 조건

아침에 아이를 초등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로 카페로 '출근'을 해서 오전에 바짝 글 작업을 한다. 몇 달 전까지는 집 앞 길 건너 언덕의, 50대의 과묵한 남자 주인장이 혼자 성실하게 운영하는 카페에서 글 작업을 했다.

그런데 그 카페가 몇 달 전 문을 닫게 돼 한동안 망연자실. 일단 집 주변부터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카페는 산만했고 어디는 음악 선곡이 별로였다. 어디는 테이블이 불편했고 어디는 주인이 말을 너무 많이 걸었다. 그러다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가야 할 만큼 멀지만 나 같은 사람이 작업하기 최적인 카페를 알게 돼 어느덧 나는 그 집의 단골이 됐다.

단골이 되려면 우선 내가 그곳의 주인과 인간적인 궁합이 맞아야 한다. 자주 봐서 불쾌하거나 불편하다면 왜 가겠는가. 서로 많은 대화를 할 필요도 없이 가게 인테리어나 손님들을 다루는 모습, 최소한의 대화만 나눠봐도 취향과 가치관의 궁합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인이나 가게에 대해 호감을 갖고, 만나면 서로 반가워하지만 주인과 손님이라는 선을 절대 넘지 않고 거리 감각을 조절할 만큼 '어른'이어야 한다. 친해졌다 해서 주인이 손님을 친구 대하듯 해도 곤란하고 손님이 주인에게 가게의 규율을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셋째, 단골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티 안 나게 서로를 배려하는 센스가 있어야 한다. 가령 단체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넓은 테이블 구성에서 일하던 나는 그들이 갈 때까지 다른 뒷구석 자리로 비켜간다. 역으로 갑자기 비가 오면 주인은 내게 슬며시 우산을 내밀고 내가 끼니도 거른 채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요깃거리를 내주기도 한다.

나와 참 잘 맞는 공간과 사람들을 자신의 예민한 안목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일은 얼마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지 모른다.

똑같은 소비라 하더라도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그저 내가 돈을 지불하니까 '고객님'으로 겨우 매뉴얼대로 대접받고 있다는 건 조금 쓸쓸한 게 아닐까.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기술직으로 계속 일해야 하나 사업은 위험 월급생활 하시길

58솔개 남자 58년 11월 26일 음력 새벽 4시 여자 59년 4월

Q 지금은 조그만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자 해도 실패할 것이 걱정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고생했던 기술직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지금 1959년 5월생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평생을 함께할 인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참신하고 명확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태어난 생일에 천을귀인(하늘의 도움을 받는 길함)이 있어 정직하여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식상 기능 기운은 있지만 사업 능력은 부족합니다. 정규적으로 월급받는 생활이 천직이니 기술직은 계속해야 합니다. 억지로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일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일구십시오. 천라지망살(하늘과 땅에 그물을 침)로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잘 구분하여 사회생활을 하면 큰 과오가 없는 것인데 차후 남에게 이용당하는 십악대패(十惡大敗)하는 운을 만나면 유시무종(有始無終)하고 낭비기가 일어나 재산상의 손실을 당합니다.여자분과는 인연이 되어 만났을 것이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승진 궁금합니다 기반 탄탄, 내년에는 좋은 소식

화산동 남자 79년 9월 10일 오후 6시55분

Q 아들만 삼 형제가 있는데 밑으로 둘은 모두 결혼하고 큰아들은 그동안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1983년생 여자와 교제 중인데 올해 안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요. 아들과 아가씨는 같은 지방공무원 입니다. 아들은 2006년 8월에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현재8급입니다. 승진과 결혼이 궁금합니다.

A 아드님은 일덕(日德)으로 성격이 신의가 깊고 생일지가 괴강(보스 기질에 정직함)이라 상사의 조력이 따르게 됩니다. 태어난 월일에 재살(災殺)이 있는데 천성이 순진하고 착하여 타인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거절을 못 해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런 연유로 같은 급수의 동료보다 뒤늦게 또는 시절의 환경적 요인으로 다소 늦을 수는 있으나 나이 들수록 기반이 단단해집니다. 2015년에 승진과 함께 결혼이 이어집니다. 2017년도부터는 관성(官星:관직이나 승진을 의미)과 재성(財星:남자에게 배우자와 재물을 나타내는 것)의 별이 빛나게 되며 배우자 덕은 두터우니 윗사람을 늘 존경하며 따르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7일 (음 3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밖으로 나가면 눈귀가 즐겁다. **60년생** 상명하복 관행에 문제 생길 듯. **72년생** 섣부른 투자는 자금만 날린다. **84년생**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 기대하라.

49년생 자녀가 고맙고 사랑스러운 하루~. **61년생** 망망대해서 엔진 꺼진 배인 격이다. **73년생** 찬바람 불던 집안에 봄바람 솔솔~. **85년생** 상사에게 원하던 대답 듣는다.

50년생 의심스러운 일은 미루는 게 좋다. **62년생** 진행 중인 일 분위기 굿~. **74년생** 직장인은 견제 세력이 많아 고난 따른다. **86년생** 승부수는 나중에 던져라.

51년생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 **63년생** 생각도 못 한 곳에서 이득이 생긴다. **75년생** 조바심 버리고 초심 유지할 것. **87년생** 필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앉는다.

52년생 삶에 크고 작은 실패는 있다. **64년생** 안 되는 일로 힘들게 하지 마라. **76년생** 억울할수록 의연한 대처가 이롭다. **88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얼렁뚱땅은 금물~.

53년생 거북이가 늪으로 들어가는 형국~. **65년생** 자부심이 강하면 적만 생긴다. **77년생** 뜻을 이루려면 변화 두려워 마라. **89년생** 귀인 만나 야심을 키운다.

42년생 혼자 하려다 다 잃는다. **54년생** 찬바람 부니 장밋빛 꿈은 깨라. **6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8년생** 뜻을 이루려면 험한 길이라고 피하지 마라.

43년생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법은 단순~. **55년생** 모처럼 집안에 훈풍이 분다. **67년생** 역마살이 동하니 적극 움직여라. **79년생** 고난 겪은 사람은 좋은 변화가 생긴다.

44년생 자녀 덕에 마음의 사치 부려본다. **56년생** 당장 어려워도 소신 굽히지 마라. **68년생** 매사 뜻대로 될 수는 없다. **80년생** 상사나 선배 말에 귀 기울여라.

45년생 집안일은 자신에게 엄격할 것. **57년생** 곪은 상처는 도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69년생** 급한 일일수록 신중히 대처할 것. **81년생**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46년생 가슴 울린 감동 받는다. **58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니 신경 써라. **70년생** 달콤한 말엔 함정이 많은 법이다. **82년생** 힘겨운 일은 협업으로 풀어라.

47년생 아랫사람은 미소로 어루만져라. **59년생** 남쪽에 가면 웃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명분이 없는 일에 매달리지 마라. **83년생** 즉흥적 생각엔 위험 따른다.

손연재 리듬체조 새 역사

한국선수 최초로 월드컵 개인종합 금메달… 성숙미 카드 적중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사진)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손연재는 5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리스본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 개인종합 둘째날 곤봉에서 17.550점, 리본에서 17.950점을 받아 전날 후프(17.900점)와 볼(17.800점) 점수를 더한 네 종목 합계에서 71.200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2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68.150점)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손연재는 네 종목에서 모두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치며 후프·볼·곤봉은 1위, 리본은 2위로 자신의 개인종합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과 야나 쿠드랍체바 등 강자들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점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세계 대회에서 절정의 기량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선수와 차별화되는 성숙미에 있다. 올해 이국적인 아라비아풍의 '바레인'으로 음악을 바꾼 리본 종목에서 손연재는 아라비아의 무희로 변신해 풍부한 표현력으로 작품을 살렸다.

이외에 올 시즌 새롭게 들고 나온 후프 종목의 음악인 루드비히 민쿠스의 발레 '돈키호테'의 곡, 볼 종목 음악인 마크 민코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요'에 맞춘 연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손연재의 표현력은 리듬체조 국제심판 강습회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만큼 인정받아왔다. 올 시즌에는 곤봉과 리본 루틴에 들어간 웨이브 등 다양한 연기 요소가 예술성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손연재는 올 시즌도 모스크바 그랑프리 후프·볼·리본 동메달, 슈투트가르트 월드컵 리본 은메달에 이어 시즌 세 번째 대회, 두 번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금메달을 땄다. 월드컵 7연 속 메달 획득이다. 이런 기세를 몰아 인천아시안게임 개인종합 금메달 목표를 이룰 지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이적생 이종욱 끝내기타…NC, 넥센에 역전승 6일 오후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9회말 1사 1,2루 상황에서 NC 이종욱이 역전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손시현과 뜨겁게 기쁨을 나누고 있다. 두사람은 올 시즌 함께 두산을 떠나 NC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전적 6일

■울산

팀	1~3	4~6	7~9	계
삼성	014	000	020	7
롯데	000	000	001	1

△승 = 장원삼(1승) △패 = 송승준(2패) △홈런 = 채태인 1호(3회3점) 최형우 2호(8회2점·이상 삼성)

■잠실

팀	1~3	4~6	7~9	계
KIA	000	000	100	1
두산	000	112	00X	4

△승 = 유희관(1승) △세 = 이용찬(2세이브) △패 = 양현종(1승1패)

■문학

팀	1~3	4~6	7~9	계
한화	000	000	100	1
SK	150	001	01X	8

△승 = 레이예스(1승) △패전투수 = 송창현(1패) △홈런 = 김강민 2호(6회1점·SK)

■마산

팀	1~3	4~6	7~9	계
넥센	100	000	011	3
NC	200	000	002	4

△승 = 김진성(1승 1세이브) △패 = 손승락(2패 2세이브) △홈런 = 이택근 2호(1회1점) 박병호 1호(8회1점·이상 넥센) 이호준 3호(1회2점·NC)

임창용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돌아온 삼성맨' 임창용(38)이 1군 승격을 위한 첫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임창용은 6일 경산 볼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서던 4회 등판해 1이닝을 탈삼진 하나를 곁들여 1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총 15개의 공을 던지는 동안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9㎞를 찍었다. 임창용은 4회 NC 선두 타자 박정준을 기분 좋게 삼진으로 돌려세우고는 후속 조평호를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임창용은 다음 타자 김성욱에게 좌익수 방면 2루타를 맞았지만 곧바로 노진혁을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임창용은 5회 마운드를 권오준에게 넘겨줬다. 임창용에 이어 등판한 권오준도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삼성의 6-0 승리를 도왔다. /양성운기자

'벤슨 활약' 모비스 2승2패 승부 원점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챔피언결정전을 원점으로 돌렸다.

6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7전4승제) 4차전에서 모비스는 창원 LG에 71-60으로 승리하며 2승2패로 균형을 맞췄다.

모비스는 로드 벤슨이 19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냈고, 문태영이 20점을 올리는 활약을 앞세워 LG를 물리쳤다. LG는 문태영의 형 문태종이 20점을 넣으며 분전했지만 높이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고 결정적인 실책으로 승리를 내줬다.

벤슨은 3차전에서 단 1득점에 리바운드 3개로 부진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1·2쿼터에서만 14점을 넣으며 제 기량을 회복했다. 모비스는 3쿼터 7분27초를 남겨두고 9점 차로 따라붙었지만 턴오버와 공격자 파울을 잇따라 저질러 쉽게 달아나지 못했다. 이때까지 맹활약을 펼친 벤슨이 LG 제퍼슨과 신경전을 벌이다 흥분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하지만 LG는 58-69로 추격하던 종료 1분 전 속공 기회에서 턴오버에 이어 파울을 저질렀다. 모비스는 문태영의 자유투 2개로 71-60으로 달아났다. /유순호기자

농구 챔프전 4차전 6일

팀	1Q	2Q	3Q	4Q	계
모비스	21	23	15	12	71
LG	15	16	16	13	60

안선주 5언더… JLPGA 시즌 첫승

안선주(27·사진)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야마하 레이디스 오픈(총 상금 1억 엔·우승 상금 1800만 엔)에서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다.

안선주는 6일 일본 시즈오카현의 가츠라기 골프장(파72·6540야드)에서 열린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개, 보기 1개로 이븐파 72타를 쳤다. 이로써 안선주는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요시다 유미코(27·일본·4언더파 284)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6번홀(파4)까지 파 행진을 이어가던 안선주는 7번홀(파3)에서 이날 경기의 첫 버디를 성공시키며 전반 라운드를 1언더파로 마쳤다. 이어진 후반 라운드에서는 15번홀(파5)까지 파로 막으며 안정감 있는 경기를 펼쳤지만 16번홀(파4)에서 통한의 보기를 범하며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그러나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공동 선두 요시다 유미코의 퍼팅 실수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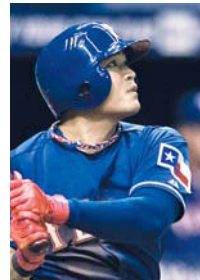
2010년과 2011년 JLPGA 투어 상금왕 안선주는 지난해 9월 니토리 레이디스 대회 우승 이후 7개월 만에 정상에 올라 일본 무대 통산 14승을 기록했다. /양성운기자 ysw@

추신수 두번째 멀티히트… 통산 500점

'출루 머신'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통산 500득점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6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 치른 5경기 중 2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타율은 0.278로 올랐다.

추신수는 2012년 20승을 거둔 좌완 데이비스 프라이스를 맞아 1회 첫 타석에서 풀카운트 끝에 우전 안타를 치며 리그 최고 톱 타자의 진가를 입증했다. 추신수는 엘비스 안드루스의 안타와 프린스 필더의 플라이볼, 알렉스 리오스의 안타로 홈을 밟았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지 10시즌 만에 통산 500득점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회에도 프라이스에게 좌중간 안타를 뽑아내며 좌투수 약점을 완전히 떨쳐낸 듯한 모습을 보였다.

4회에는 1사 1·3루에서 프라이스와 또 한 번 풀카운트 접전을 벌여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뽑아냈다. 6회와 9회에는 삼진과 2루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4-5로 패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6일

홈	득점	득점	원정
전남	2	2	포항

△ 득점 = 현영민①(전43분) 이종호②(후34분·이상 전남) 김재성①(후6분) 이명주③(후30분·이상 포항)

홈	득점	득점	원정
서울	1	1	전북

△득점 = 레오나르도②(전3분·PK·전북) 윤일록②(전27분·서울)

홈	득점	득점	원정
부산	0	0	울산

사람과 自然의 아름다운 동행

제21회 전국환경사진공모전

photo.shinhan.com으로 인터넷 접수 하세요!

■ **응모분야**
- 환경 훼손현장 고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동·식물 포함)
- 자연과 인간의 조화

※상기 세 분야 모두 '환경보전'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작품 출품 요망 (심사 시 최우선 고려 사항임)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사진규격**
- 디지털사진 – JPG 파일/20MB 이하/3,000픽셀 이상
- 필름사진 (수상 시 필름 제출) – 컬러·흑백 11"x 14"

※사진 여러 장을 붙여서 만든 조(組)사진 제외

■ **응모기간**
- 2014. 4. 1(화) ~ 5. 16(금)

■ **출품수**
- 1인 10점 이내 제한(출품료 없음)

■ **발표**
- 2014. 6. 5(목)

■ **시상**
- 금 상 (1명) : 환경부장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은 상 (2명) : 신한은행장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동 상 (4명) : 신한은행장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가 작 (7명) : 신한은행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입 선 (50명) : 신한은행장 상장 및 문화상품권(각 10만원)

■ **문의**
- 신한은행 전국환경사진공모전 사무국 Tel. 02-6925-2154

■ **접수절차**
- **디지털 사진**
  1) photo.shinhan.com 접수등록
  2) 응모내역 입력 및 사진 업로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인화 작품 접수 불가
- **필름사진**
  1) photo.shinhan.com 접수등록
  2) 접수 완료 후 접수표 출력하여 공모할 사진 뒷면에 부착
  3) 이 주소로 사진 발송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신한은행 사회공헌부"

■ **기타**
- 수상작(입선이상)의 저작권 및 작품사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신한은행에 귀속됩니다. (심사발표 후 신한은행은 기간 제한 없이 수상작을 전시, 잡지, 단행본게재, 달력제작, CD 제작 배포, 온라인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및 유사작품, 이미지 합성/변형사진 등을 출품하여 입상/입선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 발표 이후에는 출품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